

## ▶ 경제분석

달러화 강세? 글썄...

- 달러화 약세, 엔화 강세로 대외 유동성 유입 여건은 양호할 듯

한국 경제

- [6월 소비자물가] 물가 정상화, 갈길이 멀다 2

- [6월 수출입] 한국 수출, 그럭저럭 회복세

## ▶ 관심지표

6월 중국 NBS 제조업 PMI지수, 미니 부양책 효과로 개선

## ▶ 산업분석

자동차[비중확대] - 박영호: 6월 판매- 예상 부합한 2Q로 마감

건설[비중확대] - 박형렬: 2분기 주택 부문 실적 개선에 주목

미디어[비중확대] - 문지현: 정부 'PP산업 발전 전략'으로 방송 콘텐츠 활성화

## ▶ 기업분석

한화생명[Trading Buy] - 정길원: 미주NDR 후기 : 금리 방향성과 배당정책이 Key

## ▶ 주체별 매매동향

KOSPI: 외국인 (+)1,004억원 순매수, 국내기관 (-)1,279억원 순매도

KOSDAQ: 외국인 (+)245억원 순매수, 국내기관 (+)574억원 순매수

## ▶ KOSPI200 선물시장 통계

## ▶ 주가 지표

|                   |                      |                     |                     |
|-------------------|----------------------|---------------------|---------------------|
| 코스피지수 (7/1)       | 1,999.00P(-3.21P)    | 국고채 수익률 (3년)        | 2.66(-0.02)         |
| 코스닥지수 (7/1)       | 544.90P(+7.84P)      | 유가(WTI) (7/1 17:56) | 105.77(+0.61)       |
| KOSPI200지수 9월물    | 260.85P(+0.25P)      | 국내주식형펀드증감(6/30)     | 618억원               |
| 중국상해종합지수 (7/1)    | 2,050.38P(+2.05P)    | 해외주식형펀드증감(6/30)     | -191억원              |
| NIKKEI225지수 (7/1) | 15,326.20P(+164.10P) | 고객예탁금(6/30)         | 142,830억원(-6,595억원) |
| 원/달러 환율           | 1,011.70(-0.10)      | 신용잔고(6/30)          | 47,757억원(-225억원)    |
| 엔/달러 환율           | 101.32(-0.12)        | 대차잔고(6/30)          | 450,562억원(+1,501억원) |

## 달러화 강세? 글썄...

달러화 약세, 엔화 강세로 대외 유동성 유입 여건은 양호할 듯

하반기 연준의 출구전략 우려가 현실화되는 시나리오는 미국 금리 급등, 달러 강세, 글로벌 유동성 위축이다. 그러나 연준의 신중한 정책 기조를 확인함에 따라 금리 급등 우려는 당분간 덜게 되었다.

더군다나 미국 달러화 강세가 도래하는 시점도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 방향을 결정짓는 선진국 외환시장에서는 점차 '유로화 강세/달러화 약세' 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과 대외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 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디플레를 나타내는 유럽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미국의 물가 차는 유로화 강세/달러화 약세를 시사하고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 이후 선진국 통화가치의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구매력 평가 이론이다. 물가가 낮으면 1) 구매력이 높아지거나 2) 수출 경쟁력 제고로 통화가치가 강세를 나타낸다. 3) 낮은 물가가 구조조정을 반영한 결과이면 무역수지가 개선되면서 통화 가치를 높인다. 물론 물가가 상승하면 그 반대이다.

이 같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은 통화 공급 측면에서의 중앙은행 정책이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이 연준의 정책을 압도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ECB가 자산을 확대하는 대출 프로그램은 9월에나 실행 예정이고 고려하고 있는 자산 매입 정책은 실행 시점과 규모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로지역의 무역수지 흑자와 달리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다시 확대되는 것도 유로화에는 강세/달러화에는 약세 요인이다.

엔화 역시 당분간 강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물가 상승 속도가 일본을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융완화 기대는 약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 금리의 하락은 엔화 약세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달러화 약세, 엔화 강세 환경에 따라 한국을 둘러싼 대외 유동성 여건은 당분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가 우려되지만 주변 경쟁국 통화인 엔화, 위안화 강세가 동반될 것으로 보여 한국 자산이 특별히 평가 절하되진 않을 것이다..

속도 측면에서도 원화 강세 속도는 약해질 것이다. 분기말 달러 매도가 증가(수출업체 신용장 네고)하는 계절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외환시장 거래량 급감으로 정부의 개입 경계감도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 교역 조건 악화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기대도 더 커지기 어렵다.

## 글로벌 금리 하락에 더해 달러화 강세도 지연 예상

하반기 연준의 출구전략 우려가 현실화되는 시나리오는 미국 금리 급등, 달러 강세, 글로벌 유동성 위축이다. 그러나 연준의 신중한 정책 기조를 확인함에 따라 금리 급등 우려는 당분간 덜게 되었다.

## 달러화 강세 전환, 쉽지 않은 도전

더군다나 미국 달러화 강세가 도래하는 시점도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 약세(유로화 강세, 엔화 강세)로 글로벌 유동성 여건과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 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 방향을 결정짓는 선진국 외환시장에서 점차 '유로화 강세/달러화 약세' 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로화 약세/달러화 강세가 현실화되려면 유로존의 물가 상승, ECB의 정책이 보다 강력해져야 하며 그 시기는 4분기로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달러화 약세/유로화 강세 반전

6월 초 ECB의 금융 완화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면서 유로화가 급락(달러화 강세) 현상이 나타났지만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1. 유로화, 6월 중순 이후 반등(달러화 약세) 시도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호주달러화와 구리 가격 강세 지속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유로화가 반등(달러화 약세)하는 이유 1. 구매력 평가 측면에서 본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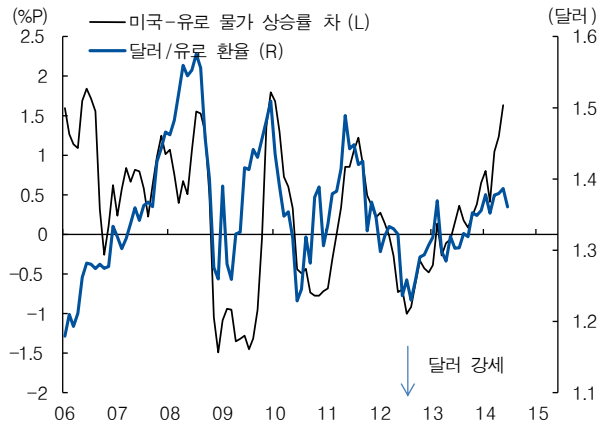
물가 격차는  
유로화 강세/달러화 약세 시사

환율을 장기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이론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글로벌 복합위기 이후 선진국 통화가치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은 구매력 평가 이론이다. 미국과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 차이는 유로화/달러화 방향성을 비교적 잘 설명해 왔다.

물가가 낮으면 1) 해당 통화의 구매력이 높아지거나 2) 수출 경쟁력 제고로 통화가치가 강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3) 낮은 물가가 구조조정을 반영한 결과이면 무역수지 개선을 통해 통화가치 안정성을 높이기도 한다. 물론 물가가 상승하면 그 반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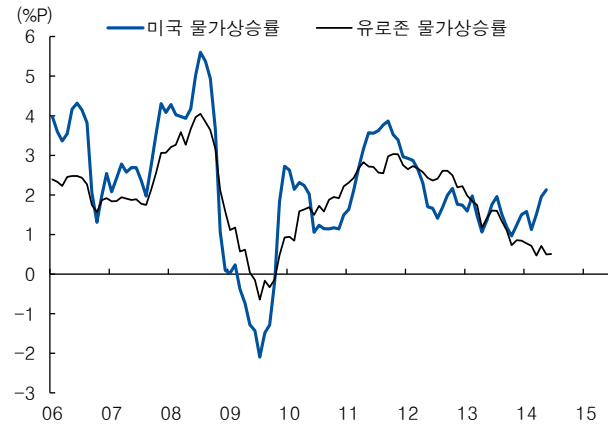
현재까지의 물가 상승률 차이(미국은 슬슬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만 유로존은 여전히 디플레이션을 걱정한다.)는 유로화 강세가 지속될 것을 시사한다.

그림 3. 미국과 유로의 물가차 고려시 유로화 강세/달러화 약세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미국은 인플레이 고민, 유로존은 디플레이 고민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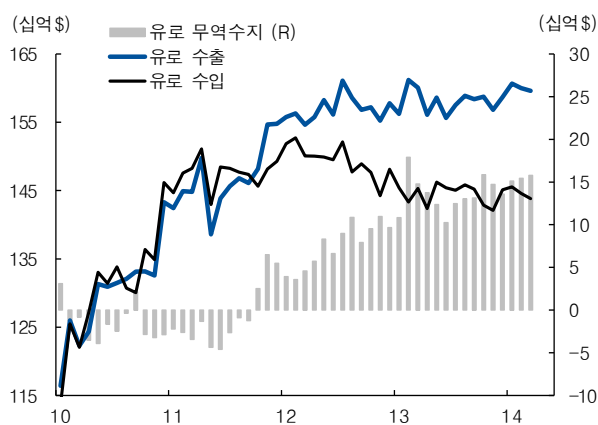
## 유로화가 반등(달러화 약세)하는 이유 2. 미국은 수입을 다시 늘리고 있다

만약 환율이 적정 수준 보다 높은 고평가 상황이라면 이후 나타나는 문제는 무역수지 적자일텐데 무역수지 상황은 유로존 상황이 더 양호하다.

미국 원유 수입 감소에도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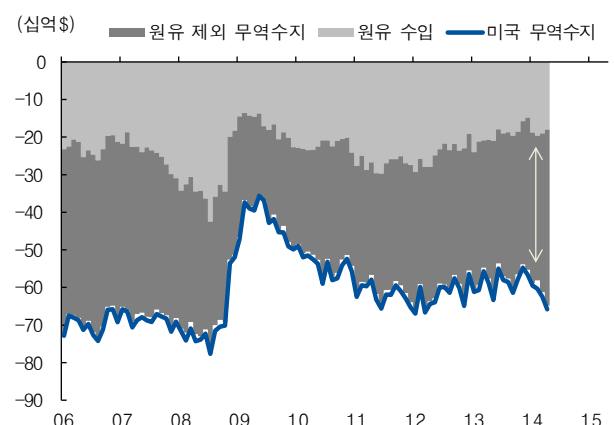
유로 지역의 수출 증가 속도는 부진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역수지 흑자 폭은 2012년 이후 확대되고 있다. 유로화의 안정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미국은 작년 4분기 이후 원유 수입 축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내수 회복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5. 유로 지역 무역수지는 개선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미국, 원유 수입 감소에도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유로화가 반등하는 이유 3. ECB 통화 약세를 위해서는 더 강한 정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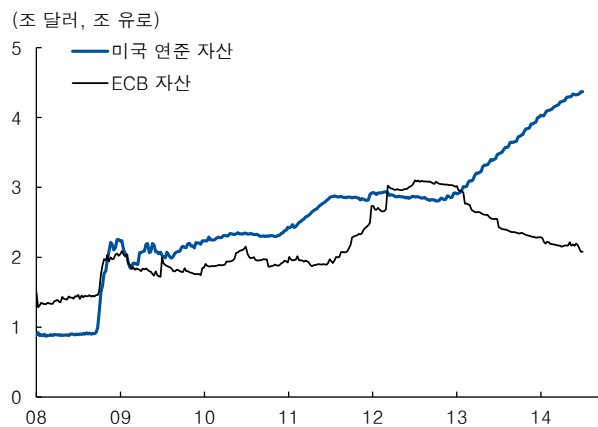
ECB, 유로화 약세 위해서는  
자산 확대 정책이 필요

이 같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은 통화 공급을 결정짓는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이다. 6월 초 유럽중앙은행(ECB)이 1) 금리 인하, 2) 은행 대출(TLTRO), 3) ABS 등 자산매입 검토 등 시장 예상보다 강력한 정책 보따리를 내놴. 그러나 여전히 연준의 정책을 압도하기 어렵다. ECB가 자산을 확대하는 대출 프로그램은 9월에나 실행 예정이고 고려하

고 있는 자산 매입 정책은 여전히 실행에 조심스러울 것이고 규모도 불확실하다.

유로화 약세가 나타나려면 유로 지역의 인플레이 기대 정상화, ECB의 자산 매입 정책 강화 혹은 연준의 양적완화가 종료되어야 한다. 그 시점은 4분기로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미 연준의 통화 공급 속도, ECB를 압도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유로 지역 국가간 신용위험 축는 유로화 강세 요인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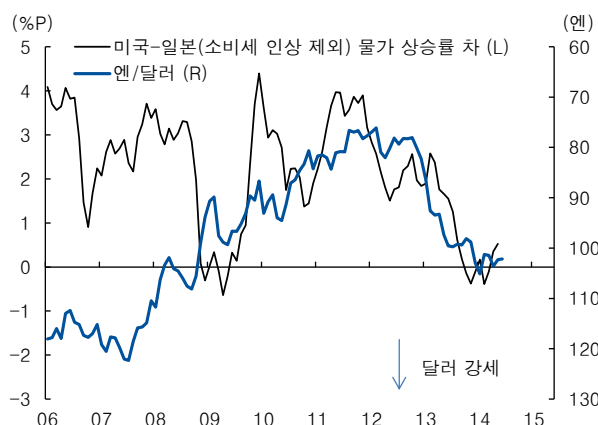
### 엔화도 강세(달러화 약세), 엔화 약세기대 대내외적으로 한풀 꺾여

한국에 부정적인  
엔화 약세 재개도 힘들다

엔화 역시 강세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물가 상승 속도가 일본을 상회하기 시작(일본의 소비세 인상 효과 제외)했다. 반면 일본은행(BOJ)의 정책 기조는 당분간 관망세 유지로 작년 보다 한걸음 뒤로 물러서 있다. 연준 보다 덜 적극적이다. 대내적으로 추가 금융완화정책 기대도 약해졌지만 대외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미국 금리의 하락도 엔화 약세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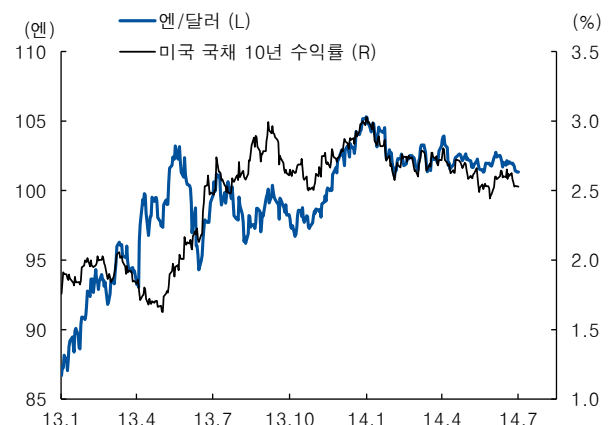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달러화 약세, 엔화 강세 환경에 따라 한국을 둘러싼 대외 유동성 여건은 당분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 엔화 약세 기대 한 풀 꺾여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미국 금리 하락 안정, 엔화 약세 억제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원화 강세 속도 둔화 예상. 현 수준에서는 감내할 만

달러화 약세에 따라 원화 강세 독주가 지속되면 국내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2분기 원화 강세와는 환경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원화 강세에도 엔화 동반 강세로  
부정적 해석은 약해질 듯

첫째, 주변 경쟁국 통화인 엔화, 위안화 강세가 동반될 것으로 보여 투자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한국 자산 매력에 특별히 평가 절하되진 않을 것이다.

원화 강세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수출 경쟁국 특히 엔화 약세가 가장 위협적이었는데 당분간 엔화 약세는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 중국 역시 체감지수가 상승하는 등 단기적으로 경기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인위적인 위안화 약세 정책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강세 속도도 한 층 누그러질 전망  
정부 개입 경계/ 계절 요인 해소  
교역조건 악화 반영

또한 속도 측면에서 원화 강세가 재차 빨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외환시장의 거래량 급감으로 정부의 개입 경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시장의 거래량 자체가 2008년 이후 최저로 정부의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낮은 거래량에도 6월 말 환율 하락에는 분기 말 달러 매도가 증가(수출업체 신용장 네고)하는 계절적 요인이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내각 출범 이후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내수 부양을 위해 환율 하락을 용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가 내수 부양 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경제 모형(2004년)을 참고하면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성장률은 0.6% 하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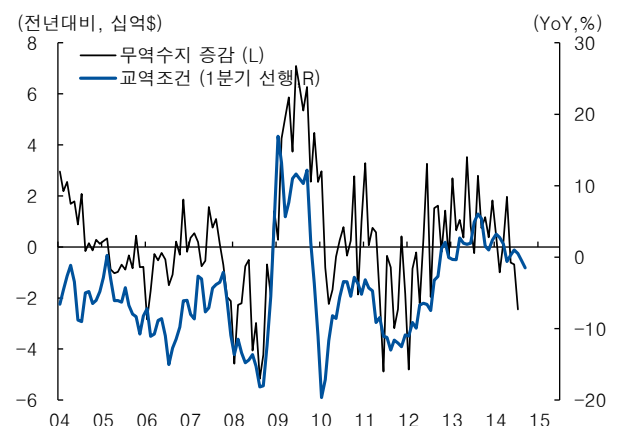
또한 교역조건(수출물가/수입물가) 악화에 따라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기대도 더 커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화 강세 분위기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세 자리수에 안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11. 외환시장 거래량 급감, 정부 개입 경계감 높아질 듯



자료: Bloomberg,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기대는 진정될 것



자료: Bloomberg,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물가 정상화, 갈길이 멀다 2

## [6월 소비자물가] 계절적 요인 > 수요 압력

-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7%로 5월 수준 유지. 시장 예상치 1.9%는 하회
- 6월 물가 변동, 수요 보다 계절적 요인이 주도. 농산물 및 서비스물가 전월비 하락
- 3분기 물가, 기상이변 등으로 오름세 빨라지겠지만 수요 정상화 근거가 되지는 못할 전망
- 수요 부문에서의 미약한 물가 압력으로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 기대감은 지속 예상

### 소비자물가, 수요 보다 계절 요인이 변동을 주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7%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5월과 같은 수준으로 시장 예상 1.9% 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물가 변동은 수요 보다 계절적 요인이 주도하고 있다. 6월 전월비 물가 하락은 농축수산물(전월비 -1.3%) 및 개인서비스 물가(-0.1%)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6월에는 농산물 출하가 늘고 5월 연휴 이후 여행비 등 서비스 물가가 안정되는 경향이 있다.

경기 여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업제품 물가도 석유류 가격이 3개월 연속 전월비 하락하면서 안정적이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는 전월대비 상승률이 2개월 연속 낮아졌다.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1.7%를 기록하고 있지만 낮은 전월비 상승률을 참고하면 물가 압력이 정상화되는 신호로 보기 어렵다. 대부분 작년도 물가가 낮았던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6월의 경우 약 33%)이 크다.

### 3분기 물가 상승률이 빨라지긴 하겠지만.. 통화완화 정책 기대감 지속 예상

3분기 물가 상승률은 2분기 보다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의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7~8월은 기상 이변, 9월은 추석 연휴로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전년동월대비 상승률도 기상 여건에 따라 일시적이거나 2%대로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물가 상승을 경기 회복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체감경기 조사를 살펴보면 기업들의 가격 인상 의지가 2개월 연속 위축되어 1분기에 나타났던 제품 가격 인상은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 유가가 다소 높아졌지만 원화 강세가 진행된 영향으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 안정목표(2.5~3.5%) 범위에 안착하기는 연내 어려울 전망이다. 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정책 당국의 부양 기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소폭 상회

|        | KDB대우예상 | 컨센서스 | 6월 실제값 | 이전치 |
|--------|---------|------|--------|-----|
| 전년동월비% | 1.9     | 1.9  | 1.7    | 1.7 |
| 전월비%   | 0.1     | 0.1  | -0.1   | 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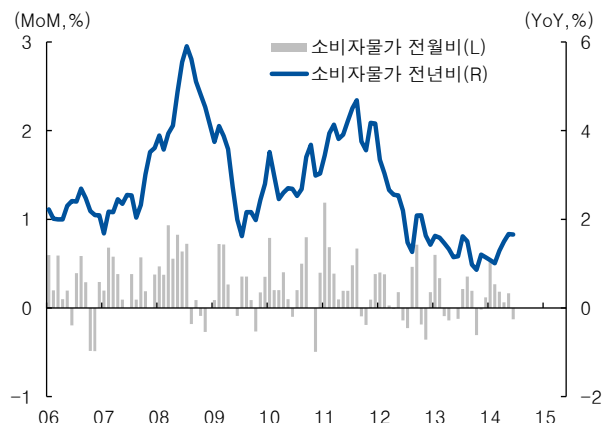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2.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대비 횡보

|             | 단위   | 12년 3Q | 4Q  | 13년 1Q | 2Q   | 3Q  | 4Q  | 14년 1Q | 2Q  | 4월  | 5월  | 6월   |
|-------------|------|--------|-----|--------|------|-----|-----|--------|-----|-----|-----|------|
| 소비자물가       | 전년비% | 1.6    | 1.7 | 1.6    | 1.2  | 1.4 | 1.1 | 1.1    | 1.6 | 1.5 | 1.7 | 1.7  |
|             | 전기비% | 0.3    | 0.3 | 0.8    | -0.1 | 0.4 | 0.0 | 0.9    | 0.3 | 0.1 | 0.2 | -0.1 |
|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 전년비% | 1.3    | 1.3 | 1.4    | 1.6  | 1.6 | 1.9 | 1.9    | 2.2 | 2.3 | 2.2 | 2.1  |
|             | 전기비% | 0.4    | 0.2 | 0.7    | 0.3  | 0.4 | 0.5 | 0.6    | 0.7 | 0.2 | 0.3 |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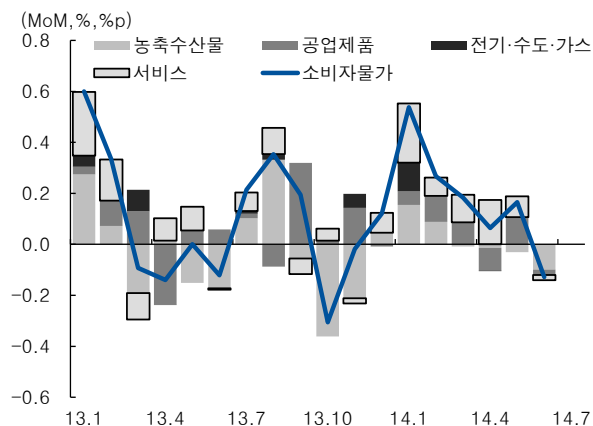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전년동월비 상승률 1.7%, 기저효과 영향이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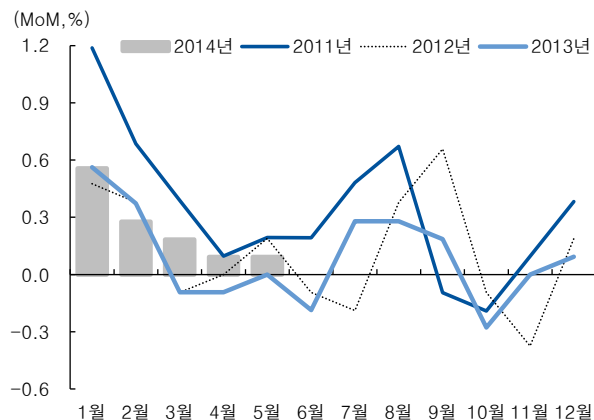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전월비 상승률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하락, 수요 압력은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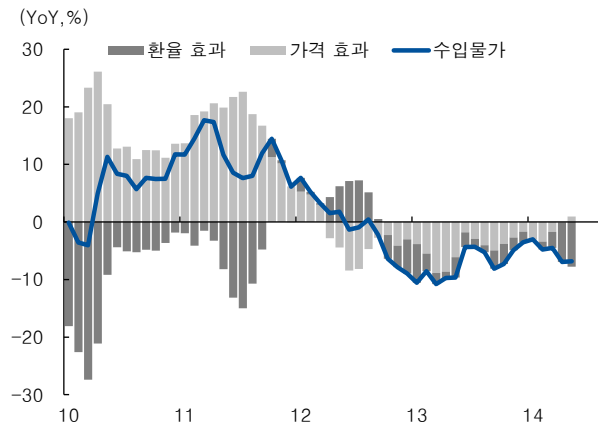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3분기 물가 상승률은 기상 이변으로 오름세 빨라질 듯



자료: 통계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그러나 원화 강세 영향으로 수입물가는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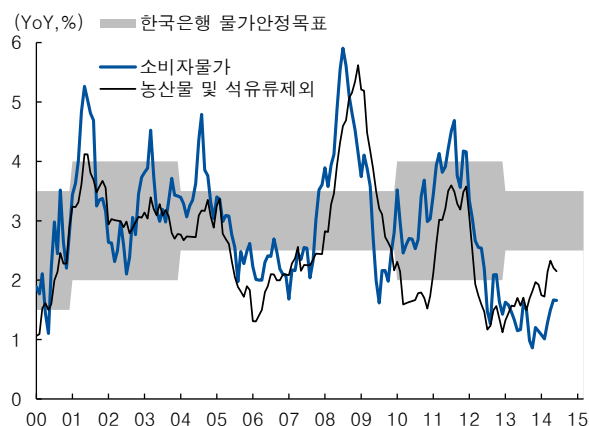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기업들의 제품가격 인상 의지도 재차 위축



자료: 통계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물가 상승률, 연내 한은 물가 목표 범위에 안착하기 어려울 듯



자료: 통계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한국 수출, 그럭저럭 회복세

## [6월 수출입] 수출 증가, 내수 견인력 약해

- 6월 수출 2.5% 증가, 시장 예상은 하회. 2분기 수출 실적은 1분기 대비 개선세
- 미국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 주도, 중국 수출은 2개월 연속 감소
- IT제품이 수출 증가 주도. 자동차 수출 부진, 선박 및 철강제품 수출 증가세
- 향후 수출 증가로 국내 경기 회복세는 이어갈 듯. 그러나 활력을 높이기에는 제한적
- 분기별 수출 개선에도 자본재 수입은 둔화. 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 대응 필요

### 6월 수출, 미국 수요가 수출 증가를 주도

6월 수출과 수입이 각각 전년대비 2.5%, 4.5% 증가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시장 예상치는 소폭 하회했지만 분기별로 봤을 때 1분기 대비로는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무역수지는 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2분기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수요의 기여가 더 높아지고 있다. 6월 대 EU 수출이 감소했지만 대 미국 수출이 15.8% 증가하는 등 2분기 중 선진국 수요가 수출 증가를 주도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신흥국 중에서는 대 중동 수출이 다소 개선되었는데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대 중국 수출은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중남미 수출도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 IT 제품이 수출 증가의 80% 기여, 선박 및 철강제품 수출 개선세

품목별로는 IT 제품 수출 증가가 전체 수출 증가에 80% 정도 기여했다. 전월 감소했던 반도체, 무선 통신기기 수출이 두 자리 수 증가율을 회복했고 LCD 수출도 작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반등해 장기 감소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자동차 수출은 2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GM의 유럽 사업 철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 밖에 선박과 철강제품 수출이 각각 3~4개월 증가세를 확대했고 4~5월 아세안 수요가 증가했던 석유제품 수출은 다시 위축되었다.

### 소비재 수입 호조, 자본재 수입 둔화

수입은 소비재 수입이 전체 수입 증가를 주도했다. FTA 체결 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EU 및 미국 등 소비재 수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설비투자에 선행하는 자본재 수입도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수입이 늘면서 증가세를 회복했다. 다만 자본재 수입 증가율이 작년 4분기 이후 둔화되고 있어 더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전월과 같은 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환율 하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수출 증가 지속 예상. 그러나 내수 부양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

대외 여건은 다소 개선되고 있어 향후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기업 체감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기업체감지수도 확장세를 회복하고 있다. 유럽의 여건은 통화정책당국의 부양책 효과가 경기 활동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3분기에는 조업일수도 다소 증가한다.

그러나 2분기 진행된 원화 강세와 신흥국의 수요 부진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큰 폭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증가율과 자본재 수입 증가율간의 괴리가 다시 커지면서 수출과 내수 경기 회복간 시차가 충분히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 증가만으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기에는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표 1. 6월 수출입 실적, 시장 예상 하회

|            | KDB대우예상 | 컨센서스 | 6월 실적치 | 이전치  |
|------------|---------|------|--------|------|
| 무역수지(십억\$) | 3.7     | 5.4  | 5.3    | 5.3  |
| 수출         | 3.0     | 5.1  | 2.5    | -1.0 |
| 수입         | 9.0     | 5.5  | 4.5    | 0.3  |

자료: 산업통상자원,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2. 수출입 증가율(%):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지속

| 구분         | 12.3Q | 4Q   | 13.1Q | 2Q   | 3Q   | 4Q   | 14.1Q | 2Q   | 4월  | 5월   | 6월  |
|------------|-------|------|-------|------|------|------|-------|------|-----|------|-----|
| 무역수지(십억\$) | 7.5   | 9.9  | 5.6   | 14.4 | 10.8 | 13.3 | 5.2   | 15.1 | 4.5 | 5.3  | 5.3 |
| 수출         | -5.8  | -0.4 | 0.3   | 0.7  | 2.8  | 4.7  | 1.7   | 3.4  | 9.0 | -1.0 | 2.5 |
| 수입         | -6.9  | -1.1 | -2.9  | -2.8 | 0.3  | 2.5  | 2.0   | 3.3  | 5.0 | 0.3  | 4.5 |
| 일평균 수출     | -6.3  | 3.2  | 2.9   | -1.3 | 5.6  | 3.2  | 2.2   | 6.4  | 9.0 | 5.6  | 4.9 |
| 일평균 수입     | -7.5  | 2.7  | -0.7  | -4.8 | 3.0  | 0.9  | 2.7   | 6.3  | 5.0 | 7.0  | 7.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3. 품목별 수출 증가율(%):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선박, 철강제품 호조

| 구분     | 비중<br>13.1H | 13.2H | 14.1H | 증가율<br>13.1Q | 2Q    | 3Q    | 4Q    | 14.1Q | 2Q   | 4월    | 5월   | 6월    |
|--------|-------------|-------|-------|--------------|-------|-------|-------|-------|------|-------|------|-------|
| 반도체    | 9.6         | 10.8  | 10.3  | 4.9          | 12.1  | 21.6  | 14.2  | 14.6  | 7.1  | 12.3  | -1.0 | 11.0  |
| 무선통신기기 | 4.7         | 5.2   | 5.1   | 23.2         | 35.8  | 15.5  | 13.9  | 22.8  | 4.3  | 14.3  | -9.8 | 11.6  |
| LCD    | 4.8         | 4.5   | 4.3   | 10.2         | -6.2  | -15.7 | -16.0 | -13.0 | -3.4 | -11.4 | -8.5 | 12.5  |
| 가전     | 2.5         | 2.8   | 2.6   | 12.0         | 11.8  | 20.7  | 26.5  | 10.4  | 4.8  | 16.2  | -0.8 | -1.2  |
| 컴퓨터    | 1.4         | 1.4   | 1.3   | -0.8         | -9.0  | -10.1 | -12.6 | -6.7  | -3.7 | -4.0  | -1.8 | -5.1  |
| 선박     | 6.8         | 6.5   | 7.1   | -27.0        | -24.9 | 31.3  | 25.5  | -5.0  | 16.9 | 18.8  | 26.6 | 10.1  |
| 자동차    | 8.9         | 8.5   | 9.0   | -3.7         | -0.2  | 5.0   | 11.4  | 5.4   | 2.7  | 16.7  | -2.3 | -5.4  |
| 자동차부품  | 4.6         | 4.7   | 4.8   | 7.4          | 3.6   | 2.3   | 10.7  | 2.0   | 9.6  | 11.2  | 10.1 | 7.0   |
| 일반기계   | 8.7         | 7.9   | 8.5   | -2.7         | -0.1  | -7.2  | -2.8  | 0.4   | 0.3  | 4.6   | -4.6 | 1.1   |
| 석유제품   | 9.6         | 9.3   | 9.2   | 3.9          | -8.1  | -9.0  | -10.2 | -7.5  | 4.2  | 18.0  | 11.3 | -14.8 |
| 석유화학제품 | 8.8         | 8.5   | 8.5   | 8.7          | 5.7   | 3.3   | 4.1   | -4.5  | 1.4  | 3.8   | -3.5 | 4.0   |
| 철강제품   | 5.9         | 5.7   | 6.2   | -10.8        | -13.7 | -14.6 | -9.4  | 2.9   | 11.4 | 17.2  | 7.4  | 9.8   |
| 섬유류    | 2.9         | 2.8   | 2.8   | 0.0          | 4.1   | -2.9  | 7.9   | 2.1   | -1.4 | 5.3   | -5.7 | -3.9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4. 지역별 수출 증가율(%): 대 미국 수출 호조, 반면 중남미 수출은 부진

| 구분    | 비중<br>13.1H | 13.2H | 14.1H | 증가율<br>13.1Q | 2Q    | 3Q    | 4Q   | 14.1Q | 2Q    | 4월   | 5월    | 6월    |
|-------|-------------|-------|-------|--------------|-------|-------|------|-------|-------|------|-------|-------|
| 중국    | 25.1        | 27.0  | 24.5  | 6.9          | 12.5  | 9.4   | 5.9  | 2.8   | -2.8  | 2.3  | -9.4  | -1.1  |
| 미국    | 11.3        | 10.9  | 11.9  | -4.7         | 9.1   | 8.3   | 12.5 | 2.3   | 13.3  | 19.3 | 5.5   | 15.8  |
| EU    | 8.9         | 8.5   | 9.7   | -9.1         | 1.6   | -4.1  | 8.4  | 16.2  | 7.7   | -3.2 | 32.0  | -2.2  |
| 일본    | 6.2         | 6.2   | 5.7   | -9.7         | -13.6 | -10.2 | -9.3 | -10.1 | 0.1   | 12.0 | -0.8  | -9.3  |
| ASEAN | 15.2        | 14.2  | 15.7  | 11.5         | 8.5   | 4.4   | -8.0 | 10.1  | 1.8   | 17.1 | -3.3  | -8.1  |
| 중동    | 6.1         | 5.4   | 6.0   | -2.3         | -16.8 | -21.7 | -5.8 | -2.0  | 4.6   | 6.5  | 0.2   | 7.6   |
| 중남미   | 6.9         | 6.1   | 5.5   | -4.3         | -2.1  | 1.4   | 0.9  | -14.5 | -20.3 | 27.6 | -39.1 | -32.9 |

주: 중동 및 중남미 6월 수출실적은 20일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한 KDB대우증권 추정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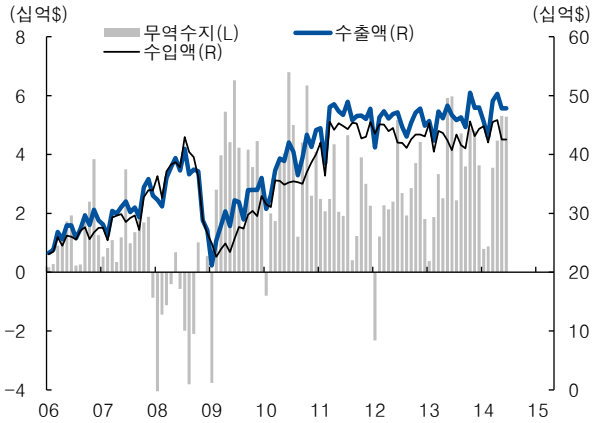
표 5. 성질별 수입 증가율(%): 소비재 수입 증가, 자본재 수입도 반등

| 구분  | 비중<br>13.1H | 13.2H | 14.1H | 증가율<br>13.1Q | 2Q   | 3Q   | 4Q   | 14.1Q | 2Q   | 4월   | 5월   | 6월   |
|-----|-------------|-------|-------|--------------|------|------|------|-------|------|------|------|------|
| 원자재 | 62.3        | 60.2  | 61.6  | -3.4         | -7.0 | -3.0 | -1.5 | 0.7   | 2.3  | 2.2  | -1.2 | 5.8  |
| 자본재 | 27.4        | 28.7  | 27.5  | -4.3         | 3.5  | 5.5  | 8.6  | 3.0   | 2.5  | 7.4  | -0.2 | 0.3  |
| 소비재 | 10.2        | 11.0  | 11.0  | 4.9          | 6.5  | 6.9  | 10.3 | 7.7   | 13.6 | 14.5 | 9.8  | 16.6 |

주: 6월 성질별 수입실적은 20일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한 KDB대우증권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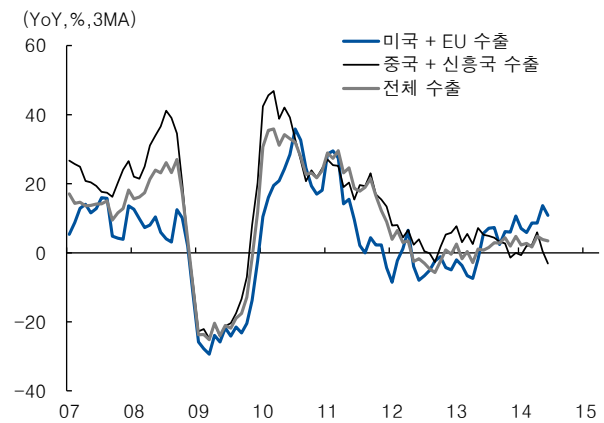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한국 수출, 그럭저럭 완만한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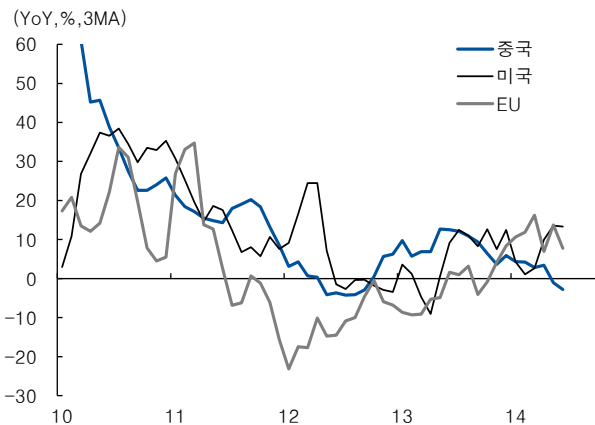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선진국 수요 증가가 수출 증가를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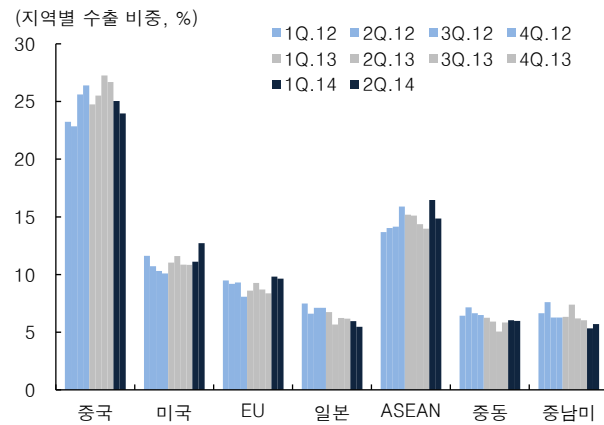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미국 및 유럽 수출 회복세, 중국 수출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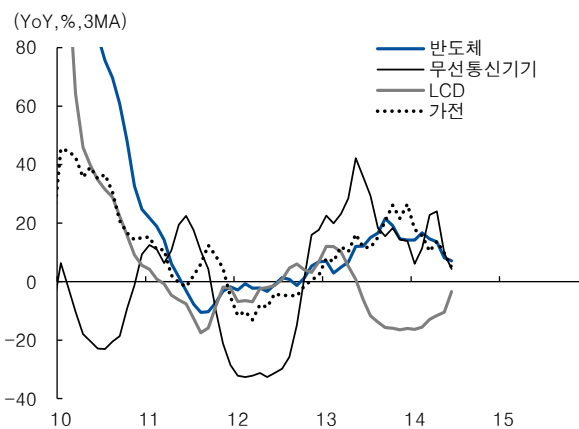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미국 및 EU 수출 비중 증가, 중국, 일본, 중남미 비중 감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2분기 수출은 증가세 둔화에도 IT 제품이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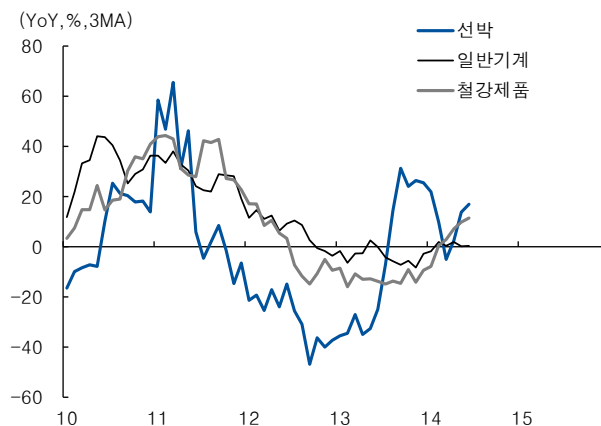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자동차는 GM 유럽 사업 철수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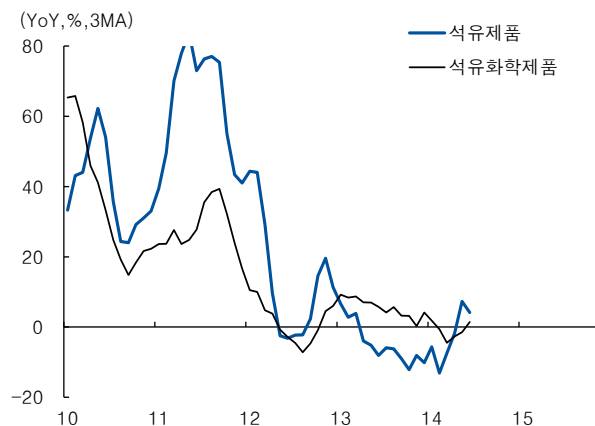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선박 및 철강제품은 2분기 중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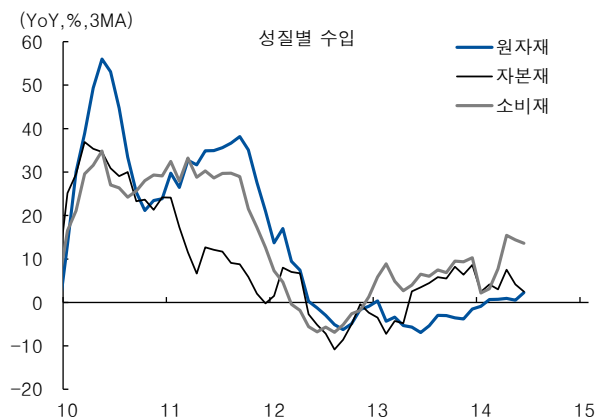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석유제품 수출은 4~5월 호조를 지속하지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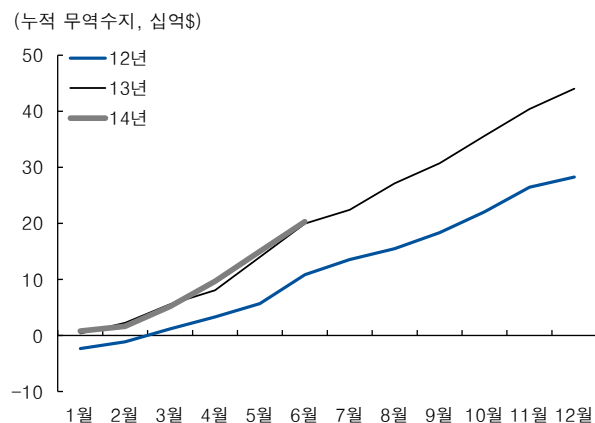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소비재가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자본재 수입은 둔화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무역수지 흑자는 작년과 비슷한 속도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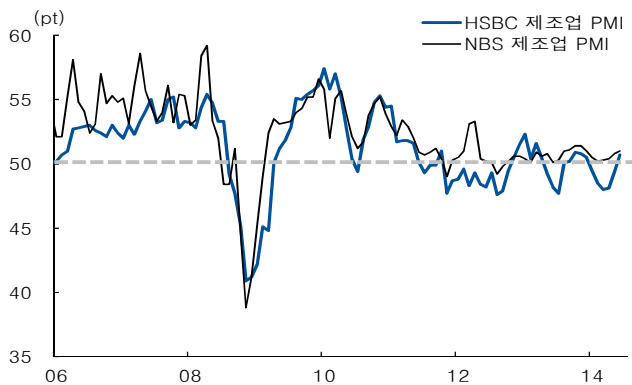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6월 중국 NBS 제조업 PMI지수, 미니 부양책 효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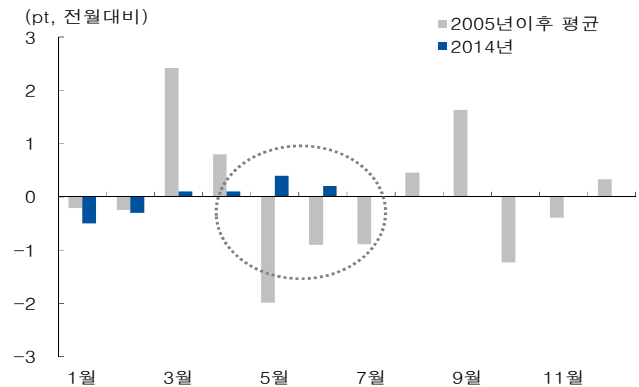
- 지난해 12개월 이후 최고치로, 정부의 미니 부양책 효과가 점차 가시화; 계절성을 고려해도 개선세는 긍정적
- 다만 대형기업 위주의 회복이라는 점은 아쉬움; 고용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완제품 재고 대비 신규수주는 상승, 6월 산업생산 개선 기대, 수출주문지수 개선도 향후 수출에 긍정적

그림 1. 작년 말 이후 최고치, 미니 부양책들의 효과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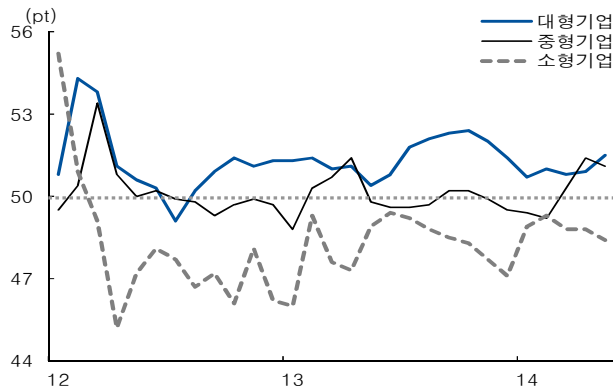
자료: WIND,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작년 말 이후 최고치, 미니 부양책들의 효과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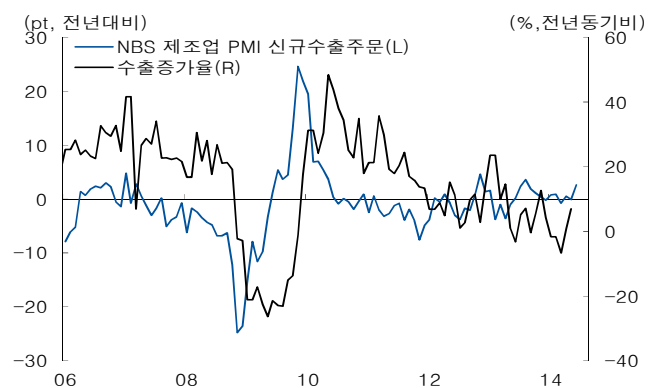
자료: WIND,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소형기업의 경기는 오히려 악화, 대기업 중심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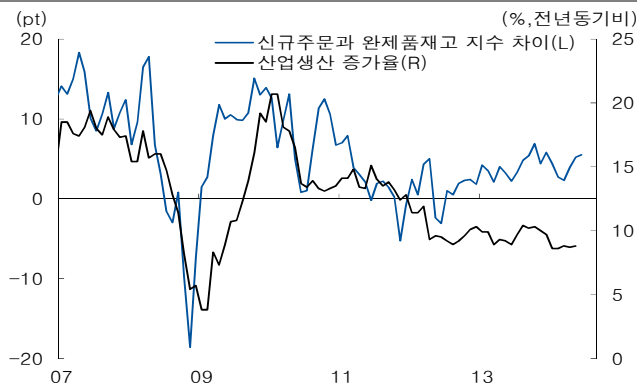
자료: CEIC,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위안화 약세, 선진국 수요회복으로 수출증가를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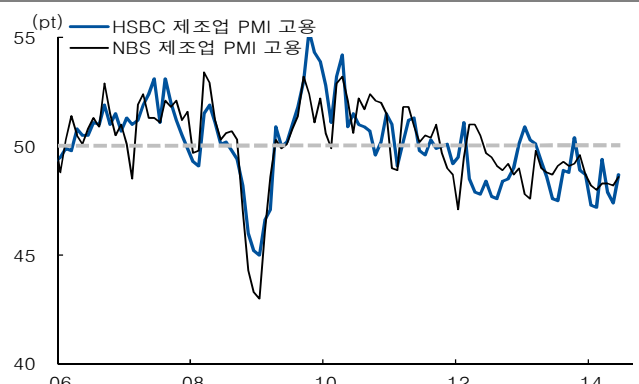
자료: CEIC,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완제품 재고 대비 신규수주 상승, 산업생산 증가율 개선 시사



자료: CEIC,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고용은 아직도 본격적인 회복을 보이지 않고 있음



자료: WIND,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자동차 (비중확대/Maintain)

## 6월 판매- 예상 부합한 2Q로 마감

- 6월 공장출고는 MoM 소폭 감소, 브라질(현대) 월드컵과 미국(기아) 생산조정 영향
- 신차 제외한 국산차 내수판매 부진 지속
- 출고 기준 2Q14 예상에 부합, 소매판매는 호조, 신차효과로 업체별 차별화 예상

### 1. 신차 제외한 국산차 내수판매 부진 지속

6월 국내 5개사 내수판매는 12.1만대로 전월 대비 정체했다. 영업 및 조업일수는 19일로 전월 및 전년동월과 동일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 실적이 정체를, 기아차와 한국GM이 판매감소를 각각 기록했다. 르노삼성의 판매는 전월 대비 15.1%, 전년동월 대비 92.5% 증가해 돋보이는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QM3와 같은 SUV 신차효과에 힘입은 것이다.

현대차의 경우 신형 제네시스 판매가 전월 대비 32% 증가했지만 신형을 포함한 쏘나타 총판매는 21% 감소했다. 신형 쏘나타의 주문잔고가 기대에 비해서는 빠르게 소진되는 것으로 보여 부정적이다. 한편 기아차는 대부분 구모델 위주의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신형을 투입한 카니발 판매가 전월 대비 207% 증가해 만회요인이 됐다.

1분기까지 국내 경기선행지수 방향성이 뚜렷하게 긍정적이었다. 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관련 지표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심리지표 역시 1분기를 지나면서 정점에서 하락했다. 다만 6월에는 다시 소폭 호전되는 모습이다.

### 2. 6월 공장 출고는 MoM 소폭 감소, 브라질 월드컵과 미국 생산조정 영향

현대, 기아의 국내외 공장 출고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다. 5월 국내 5개사 완성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8.0%,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현대와 기아의 경우는 동일한 조업일수 여건에서 전월 대비 소폭의 수출 증가를 시현했다.

해외 공장 출고실적은 현대차가 전월 대비 2.1% 감소했고, 기아차의 경우 8.0% 감소했다. 현대차의 경우 월드컵 행사 등 축제 분위기로 인한 브라질 공장 가동 부진이 주된 원인이 됐다. 기아차는 신형 쏘렌토 생산 준비를 위한 라인조정과 하계휴가 영향으로 인해 미국 공장 출고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현대, 기아 양사의 2분기 국내외 출고 실적은 5~6월의 특수한 약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기존 추정에 대체로 부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수기 효과와 신차효과가 반영된 소매판매는 호조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현대, 기아 2014년 2분기 판매의 기존 전망 대비 진도

(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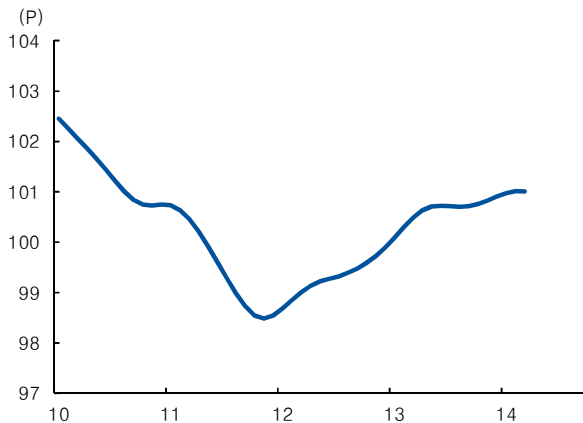
|     |        | 2Q14 잠정 출고실적(A) | 2Q14 출고 전망(B) | (A)/(B)*100 |
|-----|--------|-----------------|---------------|-------------|
| 현대차 | 내수     | 185,717         | 181,913       | 102.1       |
|     | 수출     | 314,639         | 315,371       | 99.8        |
|     | 국내 합계  | 500,356         | 497,284       | 100.6       |
|     | 해외 합계  | 768,525         | 738,920       | 104.0       |
|     | 글로벌 합계 | 1,268,881       | 1,236,204     | 102.6       |
| 기아차 | 내수     | 110,706         | 108,548       | 102.0       |
|     | 수출     | 334,111         | 328,451       | 101.7       |
|     | 합계     | 444,817         | 436,999       | 101.8       |
|     | 해외 합계  | 330,264         | 345,100       | 95.7        |
|     | 글로벌 합계 | 775,081         | 782,099       | 99.1        |

자료: 각사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3. 2분기를 비롯해 당분간 신차효과로 업체별 차별화 전망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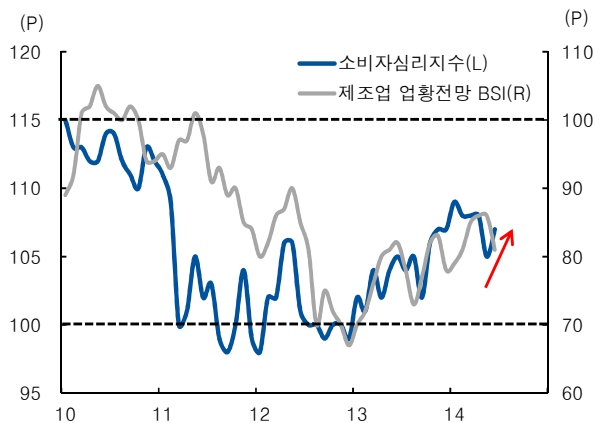
내수판매와 주요 해외시장 판매 모두에서 **주력 신차가 보강되는 현대차는 성수기 상황에 잘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 주문잔고가 줄긴 했지만 제네시스, 쏘나타 등 신차와 더불어 SUV 라인업이 좋은 내수판매의 믹스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했다. **제네시스는 미국판매를 앞두고 수출량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기아차는 주력 모델노후화로 인해 내수판매가 부진하다. 또한 원화절상 가운데 수출비중이 늘어 채산성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경기선행지수 방향성 긍정적, 2Q 들어 강도는 둔화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내수경기 지표, 6월 소비심리 MoM 다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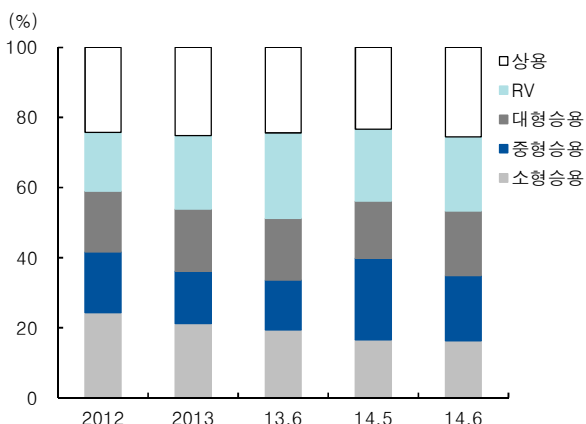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2. 2014년 6월 국내 메이커별 내수판매 및 수출

|      |      | 2014.6  | 2014.5  | MoM   | 2013.6  | YoY   | 2014(1~6) | 2013(1~6) | YoY   |
|------|------|---------|---------|-------|---------|-------|-----------|-----------|-------|
| 내수판매 | 현대   | 59,915  | 59,911  | 0.0   | 55,548  | 7.9   | 346,434   | 325,611   | 6.4   |
|      | 기아   | 35,502  | 36,188  | -1.9  | 37,653  | -5.7  | 218,675   | 226,300   | -3.4  |
|      | 한국GM | 12,132  | 12,405  | -2.2  | 10,161  | 19.4  | 71,958    | 65,203    | 10.4  |
|      | 르노삼성 | 8,515   | 7,400   | 15.1  | 4,423   | 92.5  | 36,977    | 26,309    | 40.5  |
|      | 쌍용   | 5,157   | 5,271   | -2.2  | 5,608   | -8.0  | 33,235    | 29,286    | 13.5  |
|      | 합계   | 121,221 | 121,175 | 0.0   | 113,393 | 6.9   | 707,279   | 672,709   | 5.1   |
| 수출   | 현대   | 101,240 | 99,105  | 2.2   | 110,650 | -8.5  | 626,635   | 596,111   | 5.1   |
|      | 기아   | 105,482 | 104,048 | 1.4   | 96,075  | 9.8   | 658,637   | 591,796   | 11.3  |
|      | 한국GM | 39,313  | 40,390  | -2.7  | 60,076  | -34.6 | 255,322   | 336,289   | -24.1 |
|      | 르노삼성 | 2,956   | 6,132   | -51.8 | 4,010   | -26.3 | 25,765    | 32,396    | -20.5 |
|      | 쌍용   | 6,623   | 6,801   | -2.6  | 7,004   | -5.4  | 40,706    | 37,696    | 8.0   |
|      | 합계   | 255,614 | 256,476 | -0.3  | 277,815 | -8.0  | 1,607,065 | 1,594,288 | 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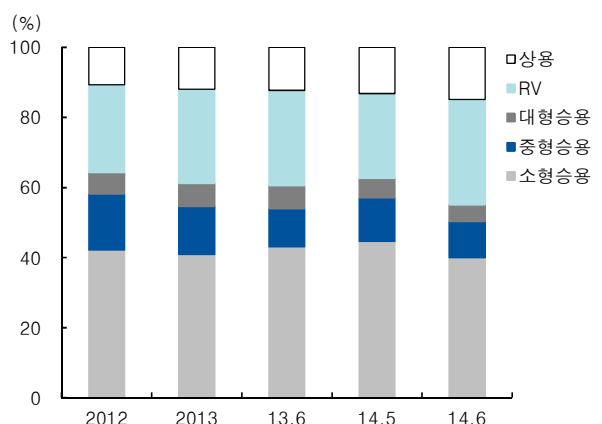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각사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현대차 내수판매 차종믹스- YoY 개선세 유지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현대차,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기아차 내수판매 차종믹스- 6월 카니발 출시로 RV 비중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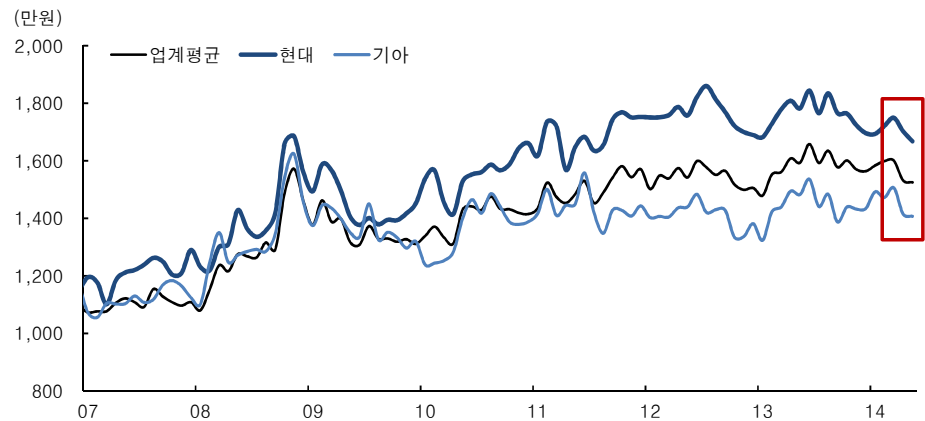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기아차,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한편 지난 5월에는 원화환산 수출단가가 제품믹스 개선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지속했다. 4월에 이어 5월에도 평균 원/달러가 전월 대비 1.9%, 전년 대비 7.7% 씩 뚜렷한 하락세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고가 차량 비중 증가 등 수출과 내수판매 믹스 개선추이가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2분기 및 하반기 제품투입 추이와 판매 전망에 기초할 때 현대차를 여전히 선호한다.

그림 5. 원화환산 수출단가, 2Q 원화절상으로 인해 일부 믹스개선 불구하고 하락세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3. 2014년 6월 현대, 기아 글로벌 출고판매 현황

(대, %)

|     |        |       | 2014.6  | 2014.5  | MoM   | 2013.6  | YoY   | 2014(1~6) | 2013(1~6) | YoY   |
|-----|--------|-------|---------|---------|-------|---------|-------|-----------|-----------|-------|
| 현대차 | 국내 공장  | 내수판매  | 59,915  | 59,911  | 0.0   | 55,548  | 7.9   | 346,434   | 325,611   | 6.4   |
|     |        | 수출    | 101,240 | 99,105  | 2.2   | 110,650 | -8.5  | 626,635   | 596,111   | 5.1   |
|     | 해외 공장  | 미국    | 33,706  | 31,422  | 7.3   | 34,000  | -0.9  | 195,195   | 206,981   | -5.7  |
|     |        | 중국    | 88,978  | 93,525  | -4.9  | 85,550  | 4.0   | 570,673   | 538,370   | 6.0   |
|     |        | 인도    | 50,500  | 51,718  | -2.4  | 54,665  | -7.6  | 296,066   | 331,600   | -10.7 |
|     |        | 터키    | 18,800  | 19,012  | -1.1  | 8,570   | 119.4 | 97,312    | 45,543    | 113.7 |
|     |        | 체코    | 27,300  | 26,584  | 2.7   | 26,336  | 3.7   | 159,509   | 155,483   | 2.6   |
|     |        | 러시아   | 18,700  | 18,421  | 1.5   | 18,316  | 2.1   | 116,375   | 113,011   | 3.0   |
|     |        | 브라질   | 13,509  | 16,328  | -17.3 | 14,060  | -3.9  | 88,176    | 78,200    | 12.8  |
|     |        | 합계    | 251,493 | 257,010 | -2.1  | 241,497 | 4.1   | 1,523,306 | 1,469,188 | 3.7   |
|     | 글로벌 합계 |       | 412,648 | 416,026 | -0.8  | 407,695 | 1.2   | 2,496,375 | 2,390,910 | 4.4   |
| 기아차 | 국내 공장  | 내수판매  | 35,502  | 36,188  | -1.9  | 37,653  | -5.7  | 218,675   | 226,300   | -3.4  |
|     |        | 수출    | 105,482 | 104,048 | 1.4   | 96,075  | 9.8   | 658,637   | 591,796   | 11.3  |
|     | 해외 공장  | 미국    | 23,844  | 31,805  | -25.0 | 30,402  | -21.6 | 185,924   | 191,969   | -3.1  |
|     |        | 중국    | 51,006  | 52,096  | -2.1  | 45,112  | 13.1  | 310,715   | 276,466   | 12.4  |
|     |        | 슬로바키아 | 29,400  | 29,400  | 0.0   | 27,700  | 6.1   | 173,000   | 158,900   | 8.9   |
|     | 합계     |       | 104,250 | 113,301 | -8.0  | 103,214 | 1.0   | 669,639   | 627,335   | 6.7   |
|     | 글로벌 합계 |       | 245,234 | 253,537 | -3.3  | 236,942 | 3.5   | 1,546,951 | 1,445,431 | 7.0   |

자료: 각사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건설

## 2분기 주택 부문 실적 개선에 주목

### 비중확대 (Maintain)

Sector Update  
2014.7.2

[건설]

박형렬  
02-768-4165  
hyungryul.park@dwsec.com

김예지  
02-768-4155  
yegee.kim@dwsec.com

### 대형 건설업체 주택 부문 실적 개선 전망

2분기 이후 주택부문의 실적이 예상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P (신규 분양가 상승) x Q (대형 건설업체 중심의 공급물량 증가) - Cost (미분양 감소 등)**에 따라 실적을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가 모두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 P: 신규 분양가 상승

여전히 부진한 서울의 기존 주택 가격 흐름과 달리 신규 분양가는 일부 수도권과 지방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분기 이후 실적에서 **기존 추정치 대비 PF 손실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자체사업 중심으로 매출 총 이익률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Q: 14년 대형 건설업체 주택 공급 물량 사상 최대에 근접할 전망

전체 시장의 신규 분양물량은 하향 안정화 상태이나,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2014년 사상 최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수주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착공 진행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형사의 주택 M/S 확대와 매출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 Cost: 미분양 10년래 최저 수준

2013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미분양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미분양 관련 손실 감소와 현금흐름 개선 측면에서 2분기부터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5월 수도권 미분양은 전년 동기 대비 -11.4% 감소하였다.

#### 자체 보유 미분양 주택 매출화 및 총당금 환입 가능

특히 실적 전망에서 가정하지 않은 준공 미분양 주택 판매가 나타나면서, 현금흐름 개선과 매출 증가, 총당금 환입에 따른 주택 실적 서프라이즈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 영업이익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상반기는 낙폭 과대 업체의 턴어라운드 찾기

2013년 해외 플랜트와 국내 주택 부문의 대규모 손실 반영 이후 **2014년 상반기는 낙폭 과대 업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대규모 손실을 반영한 업체 중 대우건설과 현대산업은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역시 해외 부문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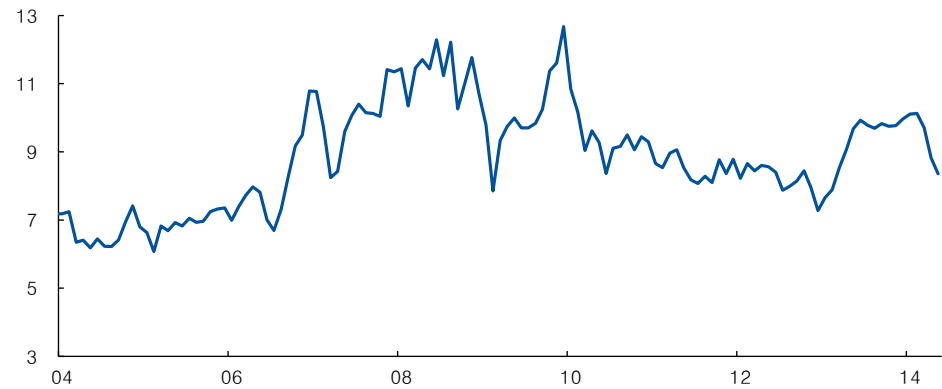
#### 하반기 업황 개선 지속 전망, Valuation 매력이 높은 대림산업, 현대건설 최선호

대부분의 대형 건설업체가 1분기 시장 기대치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였고, 2분기 실적 역시 해외 부문의 안정화와 주택 부문의 실적 개선에 따라 추정치 수준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이후 실적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고 3분기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해외 악성 프로젝트가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해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를 유지한다. 업종 내에서 저평가 매력 이 큰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을 최선호로 유지한다.

그림 1. 전국 신규 분양가(3개월 MA) 추이: 국지적 상승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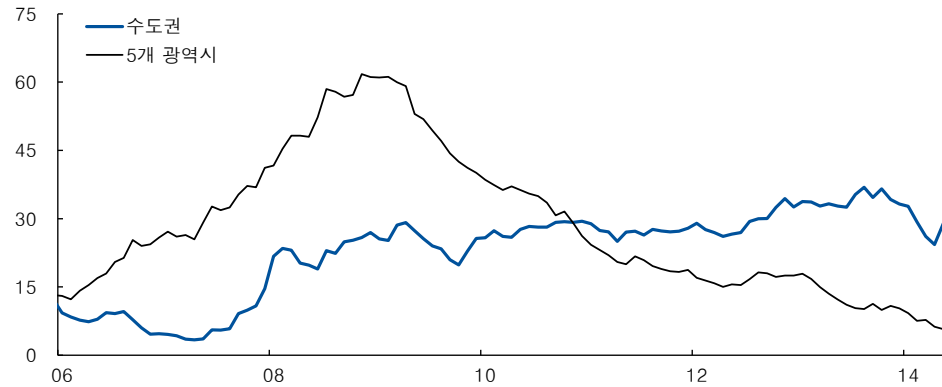
(백만원/3.3m<sup>2</sup>)



자료: 부동산114,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미분양 추이: 수도권 미분양 감소, 지방 미분양 10년래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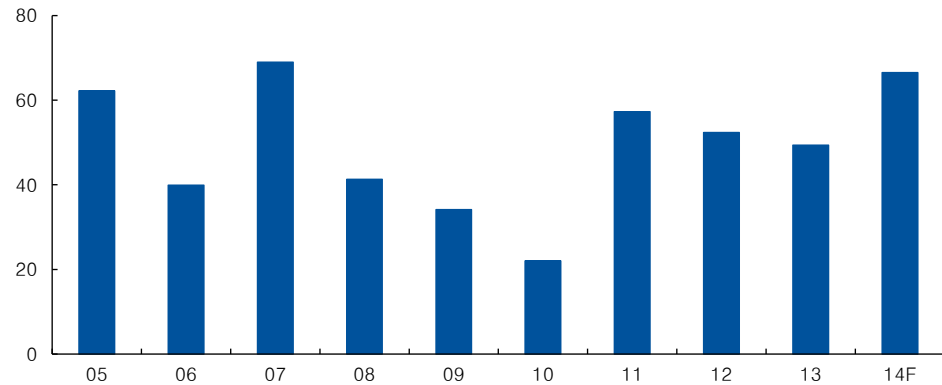
(천호)



자료: 국토교통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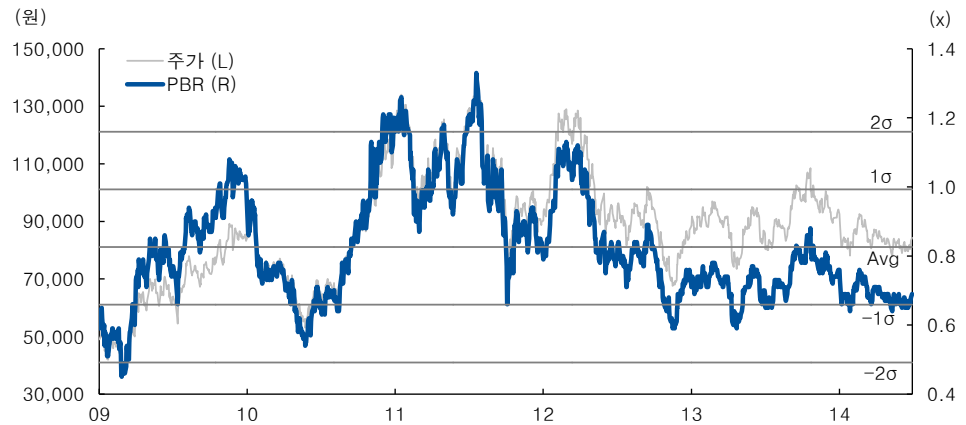
그림 3. 7개 대형 건설업체 합산 분양물량 추이

(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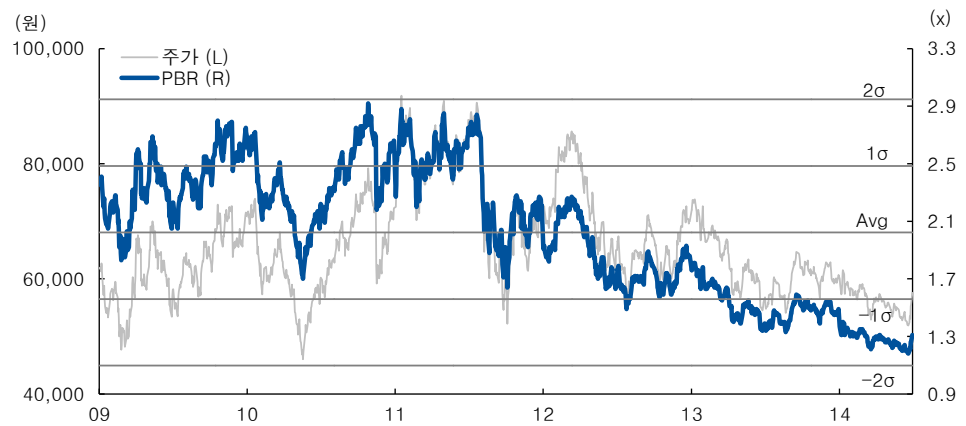
자료: 각 사,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대림산업 PBR 표준편차 -1시그마



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현대건설 PBR 표준편차 -2시그마



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미디어 (비중확대/Maintain)

## 정부 'PP산업 발전 전략'으로 방송 콘텐츠 활성화

- 전일 정부는 'PP산업 발전 전략' 발표, 방송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시대의 핵심으로 규정
- 전년 12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구체화 및 실행, 내년 3월 한미 FTA 시행 대비 차원
- 유료방송 저가 요금구조 개선,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등 추진
- 규제 완화 및 정책 이슈 오랜만에 재개, 미디어 업종 '비중확대' 의견 및 관심 증대 전망

### 1. 한국 방송 콘텐츠? 체감 경쟁력은 상승, 그러나 더딘 수익화 → 정부의 역할 필연적

한국 방송 콘텐츠 시장은 해외의 한류 드라마 인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케이블 채널) 시장의 진입 규제 완화 등과 함께 발전해왔다. 수출이 늘고, 국내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쟁력도 상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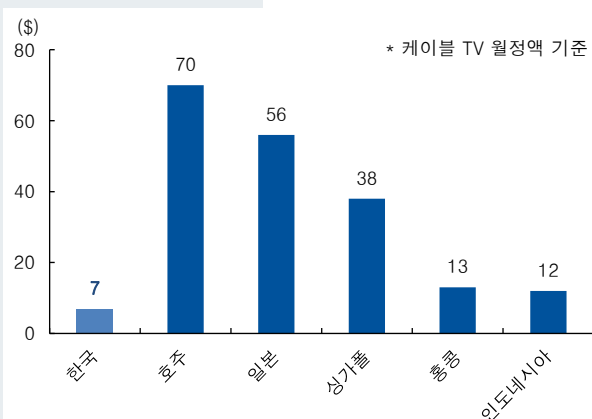
PP의 양적인 증가 추세를 보면, 채널 개수는 1993년 허가제 당시 29개, 2000년 승인제 체제에서 43개, 2001년 등록제로 개편 후 현재 390개 채널(235개 법인)까지 늘어났다. 보도 채널 2개, 종편 4개, 홈쇼핑 16개, 일반 채널 368개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TV, 데이터, 라디오 매체 PP 합산). 홈쇼핑PP를 제외한 일반PP 시장의 매출 규모는 약 2조 5천억원이며, PP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규모는 약 9천억원으로 지상파 시장의 규모를 2012년에 이미 추월했다.

PP의 질적인 경쟁력 추세를 봐도, 지상파 못지 않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체 기획 및 제작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3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CJ E&M의 예능 '꽃보다 할배'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드라마 '나인'은 장관상을 받았다. JTBC의 드라마 '밀회'와 예능 '마녀사냥'은 VOD 순위 상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의 체질은 느리게 개선되고 있다. 한국의 방송 콘텐츠 ARPU는 세계 최저 수준이며, 제작 투자재원은 경기에 민감한 광고에 편중되어 있다. 급변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콘텐츠의 수익화는 어렵고, 투자 위험성도 높다. 내년 3월에는 한미 FTA 방송 부문의 시장 개방도 다가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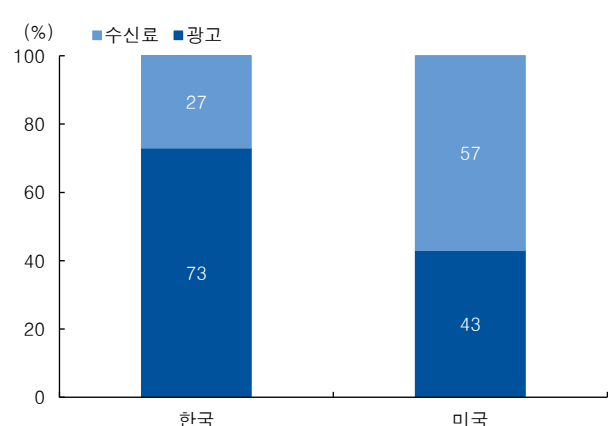
정부의 역할은 필연적이다. 7월 1일 정부는 'PP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PP산업을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 2) 왜곡된 시장 구조 및 거래 관행 개선, 3) 국내외 경쟁력 확보 등 3대 전략 하에 9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정책 이슈가 오랜만에 재개되며 구조적인 성장 모멘텀 및 리레이팅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디어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그림 1. 한국 방송 ARPU는 전세계 최저, 정부 요금구조 개선 예정



자료: Informa, 미래창조과학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한국 PP 재원은 경기 민감한 광고에 편중되어 불안정적



자료: PwC, 미래창조과학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2. 'PP 산업 발전 전략'은 방송 ARPU 개선과 제작비 세제감면 등 실질적 조치 포함

정부는 PP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콘텐츠 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유료방송 저가 요금구조 개선, 프로그램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등 실질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1) 방송 인당 매출액(ARPU) 개선을 위해 정부는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를 법정기구로 구성 및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유료방송 요금은 플랫폼 사업자간 출혈경쟁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 추세에도 불구하고 ARPU가 더디게 오르고 있으며, 홈쇼핑 송출수수료 의존 등으로 저가 수준에 고착화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기준을 개선하고, 결합상품의 적정할인을 정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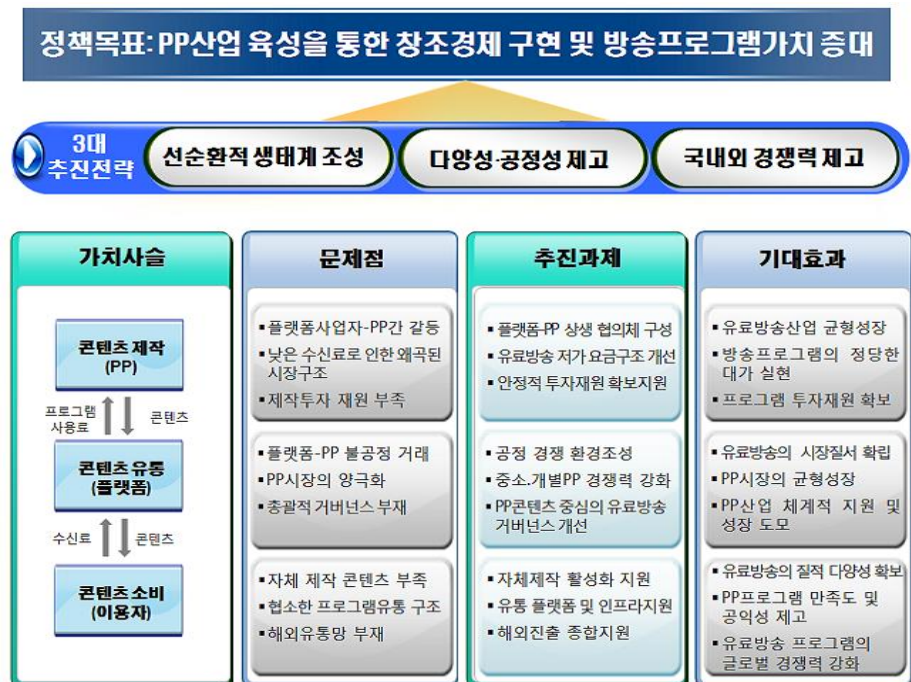
2) 안정적인 방송 콘텐츠 제작 환경을 위해서는 자체제작비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제작비에 대한 세제 감면 방안 마련, 유료방송 광고 규제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의 방송 제작비 재원이 광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광고 규제를 완화할 뿐 아니라, 민감한 광고 매출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작비 지원 및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현재 전체 제작비 중 10% 정도의 감면 수준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표 1. 정부의 PP산업 발전 3대 전략 및 9대 과제

| 3대 전략              | 9대 추진 과제                                                                                                                                                                                                                  |
|--------------------|---------------------------------------------------------------------------------------------------------------------------------------------------------------------------------------------------------------------------|
| PP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유료방송 요금 정상화, 수신료 합리적 배분, 유료방송사업자간 상생협력 등 추진)</li> <li>-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기준 개선 및 결합상품의 적정할인을 정착 방안 마련</li> <li>- 콘텐츠 자체 제작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감면</li> </ul> |
| 왜곡된 시장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SP·MPP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li> <li>- 중소·개별PP에 대한 채널할당제 시행</li> <li>-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의 설립을 통한 PP콘텐츠 중심의 유료방송 거버넌스 구축</li> </ul>                                                  |
| PP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P콘텐츠 창의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li> <li>- PP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 구축</li> <li>- 해외시장 조사, 대·중소PP 해외 동반진출,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등 추진</li> </ul>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연합뉴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PP산업 발전 전략' 요약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 3. 유료방송 콘텐츠/플랫폼 기업, 방송콘텐츠 제작 기업 수혜 가능성에 관심

한국 미디어 업종 지수는 2000년대 이후 내수 시장의 정체로 인해 규제 완화, 시장 구조재편, 해외 진출 등 구조적인 성장 변수들이 주가에 중대하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장기 전략 발표 등으로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정책 이슈가 오랜만에 재개되는 시점이다. 구조적인 성장 모델 및 리레이팅 가능성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미디어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하며, 정책 수혜 및 관심 종목으로 유료방송 콘텐츠/플랫폼, 방송콘텐츠 제작 기업을 제시한다.

CJ E&M(130960)은 국내 1위 MPP로서 연간 4천억원에 달하는 방송 콘텐츠 투자를 하고 있다. 동사는 특히 이익 기여도가 높은 게임 부문을 8월에 분할하기 때문에, 향후 방송 부문의 영업 환경과 사업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정부의 자체 제작비 세제감면 및 유료방송 광고규제 정비 추진 등은 방송 사업에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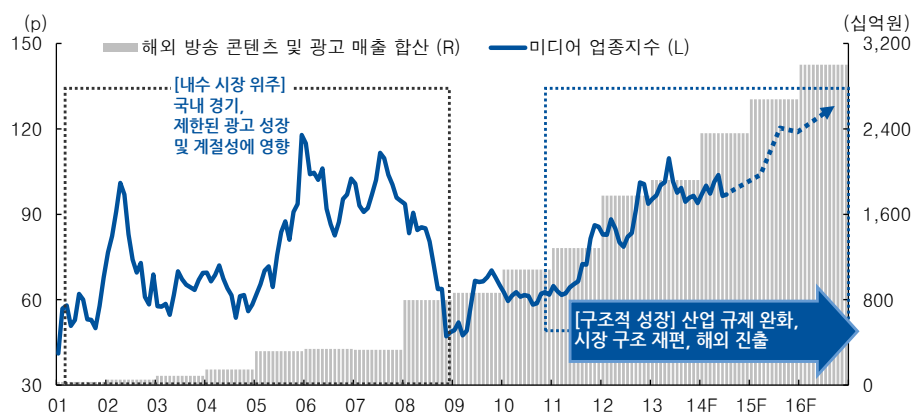
제이콘텐트리(036420)는 JTBC 방송 계열사로서 드라마 제작/유통사인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트허브'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JTBC의 경쟁력 강화 추세에서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채널 사업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관련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SBS계열 케이블 채널들을 보유한 SBS미디어홀딩스(101060), MPP 현대미디어를 보유한 현대에이치씨엔(126560), 채널 사업자 '스카이라이프티브이'를 자회사로 보유한 스카이라이프(053210) 등이다.

결합할인 경쟁 등으로 ARPU 정체를 겪고 있는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도 지나친 결합할인율을 제한하는 정부 조치 등을 통해 ARPU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CJ헬로비전(037560), 스카이라이프(053210), 현대에이치씨엔(126560) 등이다.

정부의 유료방송에 대한 수신료 및 광고 규제 완화가 추진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 정책 개선도 모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인상을 모색 중이며, 광고 규제 측면에서도 MBC와 SBS(034120) 등과 관련하여 중간광고 및 광고총량제, PPL 제도 및 광고금지품목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 미디어 업종 지수 장기 추이: 규제 완화 및 해외 진출 경쟁력 등 구조적 성장 변수 중요!



자료: Thomson Reuters, 콘텐츠진흥원, 제일기획, 한국은행,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한화생명

(088350/Trading Buy)

## 미주NDR 후기 : 금리 방향성과 배당정책이 Key

- 미주 투자자들의 관심은 1) 역마진의 방향, 2) RBC비율을 고려한 배당정책 등에 관심
- 사차이익의 증대, 보장성 중심의 성장 전략 견지, RBC 여유가 생긴 점 등은 긍정적
- 주가의 하락 가능성은 낮지만, 금리 상황 및 예보 오버행 이슈 등이 현실적 제약 → 배당 성향의 확대 등을 통해 장기투자의 유인 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Trading Buy, TP 8,200원 유지

### 미주 투자자들의 관심은 실적 보다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부

지난 주 한화생명과 미주 NDR을 실시하였음, 투자자들의 관심은 단기 실적 보다는 1) 이차역마진의 방향, 2) RBC 부담 등의 Negative 이슈들이 어떻게 unwind 될지에 집중되었음

#### 1) 이차역마진의 방향, 개선속도에 대한 Outlook?

- 연간 15bp 정도 부채부담 금리가 하락하는 기조는 유효, 다만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다른 생보사들과 마찬가지로 역마진 해소 역시 지체되는 상태
- 특히 작년에는 RBC 관리가 우선이다 보니 역마진 개선에 역행하는 자산운용이 불가피했음 (장기채 매수에 주력), 최근 RBC 부담 약화되면서 역마진 축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
- 신규투자 이익률이 최근 5%를 상회 (최근 분기별 추이 3.9% → 4.1% → 4.9% → 5.4%), 대출 및 해외채권 등을 늘리면서 신규이원이 올라가고 있음

#### 2) 사차이익의 호조가 지속될 지 여부?

- 손해율이 80% 초반으로 하락하는 등 사차이익의 개선이 두드러짐, 사차이익은 IPO 시점에서 분기 600억 → 현재 1,000억 원까지 증대
- 1) 종신, CI 중심으로 매출 주력하여 IPO 이후 10%씩 꾸준히 성장하여 위험보험료 유입이 좋고, 2) 유지율 개선 효과, 3) 언더라이팅 강화 효과 등으로 사고보험금이 늘지 않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
- 타사와 달리 RBC 여유가 많지 않아, 연금/저축보다는 종신/CI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적 제약의 순기능, 좌고우면하지 않고 보장성 중심의 매출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유지율도 좋기 때문에 사차이익의 확대는 문제 없을 것임

| 결산기 (12월)   | 03/12  | 03/13  | 12/13 | 12/14F | 12/15F | 12/16F |
|-------------|--------|--------|-------|--------|--------|--------|
| 수입보험료 (십억원) | 11,832 | 14,510 | 9,970 | 13,959 | 14,784 | 15,582 |
| 영업이익 (십억원)  | -90    | -289   | -153  | -257   | -264   | -193   |
| 순이익 (십억원)   | 534    | 467    | 389   | 435    | 519    | 578    |
| EPS (원)     | 615    | 538    | 448   | 500    | 598    | 666    |
| BPS (원)     | 7,481  | 8,059  | 8,053 | 8,837  | 9,543  | 10,057 |
| P/E (배)     | 12.3   | 12.7   | 17.0  | 12.9   | 10.8   | 9.7    |
| P/B (배)     | 1.0    | 0.8    | 0.9   | 0.7    | 0.7    | 0.6    |
| ROE (%)     | 8.4    | 6.9    | 5.6   | 5.9    | 6.5    | 6.8    |
| 배당수익률       | 3.0    | 2.2    | 1.6   | 2.0    | 2.3    | 2.6    |
| 자기자본 (십억원)  | 6,497  | 6,999  | 6,995 | 7,675  | 8,288  | 8,735  |

주: K-IFRS 별도 기준, 12/13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9개월 수치임

자료: 한화생명,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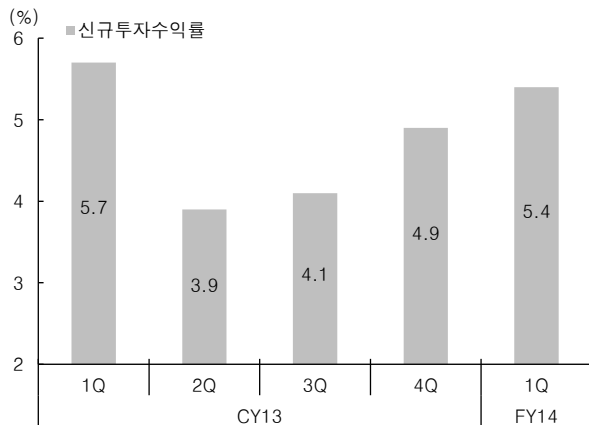
### 3) 낮은 배당수익률의 제고 가능성?

- 현재 배당성향은 25%, 배당수익률은 1.5% 수준, RBC비율의 관리와 감독당국의 성향 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과거와 같은 40%까지 회귀하려고 노력 중
- 작년까지는 RBC제도의 불확실성이 컸으나, 내년까지 도입되는 제도를 적용해도 현재 250%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임
- 사차이익의 증대 추세에 더불어 구조조정의 효과로 인해 손익이 개선될 것이고, RBC 기준선이 낮아지면서 배당에 대한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

###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는 상황, Downside Risk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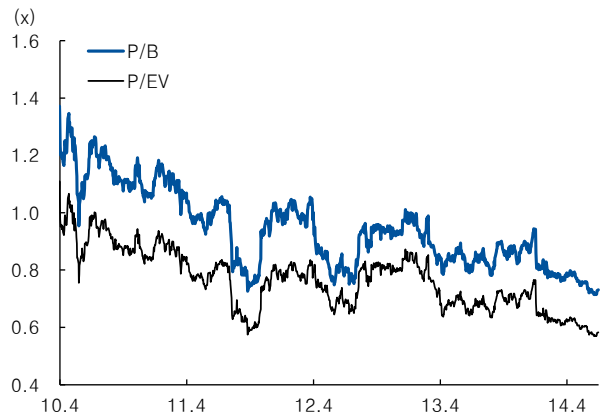
- 전반적인 견해는 국내투자자와 다르지 않았으나 주가의 바닥을 탐색하려는 의지가 강했음
- 사차익 중심으로 질적인 이익 개선이 감지되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를 모두 훼손하는 이차역 마진의 방향, 속도가 결국 실적과 주가의 Key, 즉 금리방향성을 잘 포착하면 1) Trading 기회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2) Downside Risk는 제한적이라는 데 동의
- 다만 금리 및 예보의 오버행 등 현실적인 제약 요인을 외면할 수는 없음, 이를 타개할 방법은 결국 안정적인 주주수익률, 즉 배당성향의 제고 등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투자자들이 다수

그림 1. RBC부담이 낮아지면서 신규이원 제고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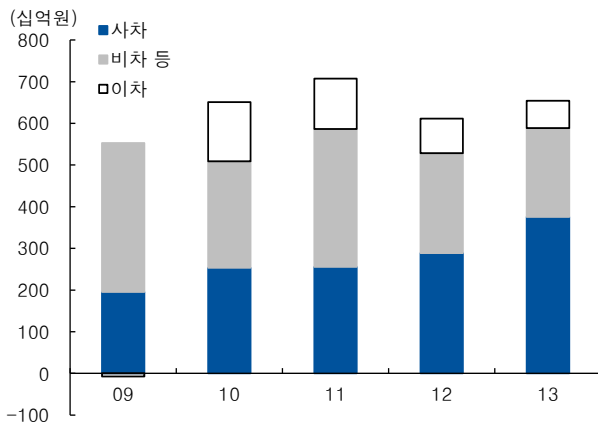
자료: 한화생명,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한화생명 P/B, P/EV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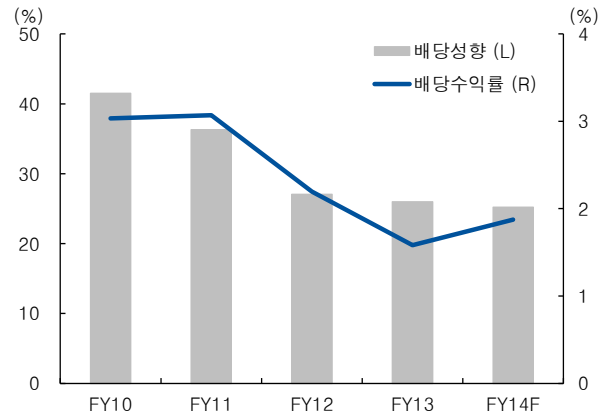
자료: 한화생명,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사차이익은 매우 현저하게 증대, 이차이익의 향방이 관건



자료: 한화생명,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배당 성향 및 배당 수익률 추이



주: FY14F는 컨센서스 기준

자료: 한화생명,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KOSPI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 국내기관 (업종) |       |         | 기관전체 (당일 -1278.7 / 5일 5442.4) |          |        | 외국인 (업종) |       |          | 외국인전체 (당일 1003.5 / 5일 5994.9) |        |         |
|-----------|-------|---------|-------------------------------|----------|--------|----------|-------|----------|-------------------------------|--------|---------|
| 순매매 상위    | 금액    | 5일      | 순매매 하위                        | 금액       | 5일     | 순매매 상위   | 금액    | 5일       | 순매매 하위                        | 금액     | 5일      |
| 건설업       | 467.5 | 829.1   | 전기전자                          | -1,115.0 | 139.5  | 전기전자     | 754.9 | -1,320.0 | 화학                            | -92.6  | -689.3  |
| 서비스업      | 250.6 | 2,275.8 | 운수장비                          | -557.8   | 321.2  | 유통업      | 97.9  | 141.2    | 운수창고                          | -39.3  | -135.5  |
| 통신업       | 99.9  | -258.9  | 유통업                           | -205.9   | 926.4  | 전기가스     | 90.2  | 121.3    | 보험업                           | -32.3  | -77.4   |
| 증권        | 30.8  | 64.4    | 금융업                           | -129.1   | -470.9 | 금융업      | 62.1  | 753.3    | 증권                            | -24.7  | 32.3    |
| 보험업       | 22.6  | -107.3  | 철강금속                          | -99.4    | 127.2  | 통신업      | 45.0  | 391.2    | 기계                            | -15.0  | -132.7  |
| 국내기관 (종목) |       |         | 외국인 (종목)                      |          |        | 외국인 (종목) |       |          | 외국인 (종목)                      |        |         |
| 순매수       | 금액    | 5일      | 순매도                           | 금액       | 5일     | 순매수      | 금액    | 5일       | 순매도                           | 금액     | 5일      |
| GS건설      | 167.7 | -53.5   | 삼성전자                          | -969.3   | 193.1  | 삼성전자     | 626.0 | -936.1   | 현대모비스                         | -242.3 | -268.6  |
| 대림산업      | 148.3 | 163.0   | 현대차                           | -282.4   | 145.5  | 현대차      | 290.0 | 1,049.3  | 강원랜드                          | -102.4 | -188.8  |
| 현대건설      | 111.6 | 676.4   | LG전자                          | -145.9   | -317.4 | 삼성SDI    | 89.3  | 3.7      | SK C&C                        | -57.3  | 3,980.2 |
| LG디스플레이   | 99.3  | 681.2   | SK하이닉스                        | -144.3   | 64.6   | SK하이닉스   | 81.7  | -570.0   | LG전자                          | -49.6  | 151.0   |
| SBI모기지    | 95.6  | -18.0   | 현대모비스                         | -143.2   | 223.5  | 하나금융지주   | 73.2  | 417.4    | 현대백화점                         | -44.7  | -10.6   |
| KT        | 83.2  | 114.7   | 삼성물산                          | -138.6   | 192.6  | 한국전력     | 67.6  | 98.2     | 대우조선해양                        | -40.5  | 84.8    |
| 강원랜드      | 79.4  | 218.1   | 기아차                           | -114.1   | 468.2  | NAVER    | 59.6  | 249.2    | 아모레퍼시픽                        | -39.1  | -314.6  |
| 삼성SDI     | 70.6  | -526.3  | 하나금융지주                        | -100.7   | -517.6 | LG화학     | 58.7  | -140.2   | KODEX레버리지                     | -37.5  | 118.7   |
| SK C&C    | 61.2  | -133.7  | KB금융                          | -67.5    | -51.9  | 신한지주     | 55.3  | 494.4    | 삼성생명                          | -27.6  | -135.0  |
| GS        | 57.4  | 64.1    | 세아베스틸                         | -61.2    | -79.7  | SK이노베이션  | 54.6  | 60.6     | 오리온                           | -27.4  | 88.6    |

## KOSDAQ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 국내기관 (업종) |       |        | 기관전체 (당일 573.5 / 5일 -628.1) |       |       | 외국인 (업종) |       |       | 외국인전체 (당일 244.9 / 5일 330.3) |       |       |
|-----------|-------|--------|-----------------------------|-------|-------|----------|-------|-------|-----------------------------|-------|-------|
| 순매매 상위    | 금액    | 5일     | 순매매 하위                      | 금액    | 5일    | 순매매 상위   | 금액    | 5일    | 순매매 하위                      | 금액    | 5일    |
| 반도체       | 139.6 | -210.9 | 운송장비.부품                     | -12.2 | -34.5 | 반도체      | 122.7 | 41.6  | 인터넷                         | -22.0 | -13.5 |
| 기타        | 113.3 | 87.4   | 화학                          | -10.5 | 25.8  | 화학       | 44.4  | 36.4  | 방송서비스                       | -10.7 | 40.2  |
| 방송서비스     | 100.1 | -104.8 | 유통                          | -6.7  | -20.2 | 기타       | 28.5  | 42.9  | 음식료.담배                      | -10.5 | -24.5 |
| 통신방송      | 95.1  | -143.1 | 통신서비스                       | -5.0  | -38.3 | 디지털콘텐츠   | 20.6  | -33.8 | 제약                          | -9.1  | 72.1  |
| 제약        | 53.8  | 90.5   | 일반전기전자                      | -2.2  | 29.0  | 유통       | 17.0  | 53.3  | 통신방송                        | -7.7  | 72.7  |
| 국내기관 (종목) |       |        | 외국인 (종목)                    |       |       | 외국인 (종목) |       |       | 외국인 (종목)                    |       |       |
| 순매수       | 금액    | 5일     | 순매도                         | 금액    | 5일    | 순매수      | 금액    | 5일    | 순매도                         | 금액    | 5일    |
| 서울반도체     | 106.1 | -117.2 | 와이지엔터테인먼트                   | -65.5 | -50.7 | 서울반도체    | 59.1  | 20.6  | 다음                          | -23.9 | -15.8 |
| 제넥신       | 82.8  | -2.3   | 캐스텍코리아                      | -14.4 | -35.2 | 동성화인텍    | 36.8  | 13.6  | CJ E&M                      | -16.4 | 30.4  |
| 에스엠       | 81.1  | -76.1  | 나노신소재                       | -13.3 | 10.7  | 유진테크     | 27.0  | -18.7 | 에스엠                         | -14.1 | -31.2 |
| CJ E&M    | 74.8  | -157.8 | 솔브레인                        | -11.2 | -15.7 | GS홈쇼핑    | 15.3  | -3.5  | 게임빌                         | -12.2 | 21.0  |
| 파라다이스     | 27.7  | -111.0 | 유진테크                        | -9.5  | -9.2  | 루멘스      | 14.6  | -39.9 | 이지바이오                       | -11.3 | -18.8 |
| 씨젠        | 25.4  | -3.9   | 내츄럴엔도텍                      | -7.6  | 0.4   | 컴투스      | 14.4  | -57.5 | 셀트리온                        | -11.2 | -3.0  |
| 메디톡스      | 22.5  | 16.3   | 파트론                         | -7.1  | -42.7 | 내츄럴엔도텍   | 13.8  | 19.3  | CJ오쇼핑                       | -10.2 | 11.9  |
| CJ오쇼핑     | 18.1  | 58.1   | 차바이오텍                       | -6.6  | 17.5  | 위메이드     | 11.4  | 3.3   | 뷰웍스                         | -6.9  | 15.7  |
| 덕산하이메탈    | 16.9  | 8.7    | SK브로드밴드                     | -5.8  | -35.5 | 테스       | 11.1  | 30.1  | 인성정보                        | -6.7  | 3.6   |
| KG모빌리언스   | 16.1  | 6.0    | 코나아이                        | -5.8  | -22.5 | 솔브레인     | 10.4  | 9.0   | 우리산업                        | -4.5  | 2.6   |

※ 본 자료 중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5일: 증권전산 CHECK 기준 (당일 제외, 이전 최근 5일), 당일 금액과 5일에서 (-)는 순매도를 의미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 투신        |         |            |           | 연기금         |         |         |           |
|-----------|---------|------------|-----------|-------------|---------|---------|-----------|
| 순매수       | 금액      | 순매도        | 금액        | 순매수         | 금액      | 순매도     | 금액        |
| GS건설      | 8,002.8 | 삼성전자       | -39,281.3 | SK C&C      | 5,849.0 | 삼성전자    | -19,261.6 |
| LG디스플레이   | 5,237.7 | KODEX 200  | -39,129.8 | GS건설        | 3,592.5 | SK하이닉스  | -15,217.0 |
| 현대건설      | 4,681.4 | 현대차        | -9,204.5  | KT&G        | 3,566.4 | 현대차     | -6,118.0  |
| 대림산업      | 4,623.9 | 기아차        | -9,102.4  | SK텔레콤       | 3,337.0 | 삼성물산    | -5,891.6  |
| KT        | 4,420.7 | 현대모비스      | -7,960.0  | 현대미포조선      | 2,964.2 | LG전자    | -4,793.4  |
| GS        | 4,234.0 | 금호석유       | -6,904.7  | 효성          | 2,928.5 | 한국타이어   | -3,783.1  |
| 대우조선해양    | 2,963.4 | 하나금융지주     | -4,906.6  | OCI         | 2,727.2 | 한국가스공사  | -3,527.6  |
| 대우건설      | 2,342.7 | KB금융       | -4,659.1  | 현대위아        | 2,625.1 | KB금융    | -3,494.4  |
| 아모레퍼시픽    | 1,903.5 | 삼성물산       | -3,501.1  | 강원랜드        | 2,561.9 | POSCO   | -3,198.1  |
| 삼성전자우     | 1,790.7 | SK하이닉스     | -3,420.8  | GS          | 2,467.1 | 신한지주    | -2,559.9  |
| 은행        |         |            |           | 보험          |         |         |           |
| 순매수       | 금액      | 순매도        | 금액        | 순매수         | 금액      | 순매도     | 금액        |
| KT        | 1,281.0 | SK C&C     | -4,161.5  | KODEX 200   | 5,495.1 | 삼성전자    | -9,855.0  |
| GS건설      | 1,016.1 | KODEX 레버리지 | -2,461.3  | LG디스플레이     | 4,836.4 | 현대차     | -4,552.4  |
| KODEX 200 | 979.5   | 삼성전자       | -1,867.4  | 대림산업        | 4,290.4 | LG전자    | -4,552.0  |
| LG화학      | 839.9   | 두산중공업      | -1,744.3  | GS건설        | 4,163.4 | 현대모비스   | -4,405.2  |
| 메리츠화재     | 700.6   | 현대차        | -1,362.6  | 현대건설        | 3,876.1 | 금호석유    | -2,840.5  |
| 현대상사      | 693.7   | 삼성물산       | -1,245.8  | TIGER 200   | 2,662.4 | LG화학    | -2,761.5  |
| 현대백화점     | 619.3   | 롯데케미칼      | -1,213.8  | KStar 200   | 2,516.4 | 하나금융지주  | -2,241.7  |
| LG전자      | 515.3   | KT&G       | -1,179.8  | ARIRANG 배당주 | 2,356.0 | 대우조선해양  | -1,921.6  |
| 대림산업      | 503.1   | LS         | -1,132.4  | SK C&C      | 2,079.1 | 대우인터내셔널 | -1,805.5  |
| 한미반도체     | 495.1   | SK이노베이션    | -1,091.5  | 삼성SDI       | 1,963.2 | SBI모기지  | -1,698.9  |

## KOSPI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 순매수     |         |          | 순매도    |          |          |
|---------|---------|----------|--------|----------|----------|
| 종목      | 외국인     | 기관       | 종목     | 외국인      | 기관       |
| 현대건설    | 4,645.1 | 11,160.9 | LG전자   | 4,961.1  | 14,594.4 |
| LG디스플레이 | 714.5   | 9,934.8  | 현대모비스  | 24,229.8 | 14,321.9 |
| SBI모기지  | 685.0   | 9,563.9  | 기아차    | 662.7    | 11,408.7 |
| 삼성SDI   | 8,928.2 | 7,062.7  | KB금융   | 2,289.8  | 6,753.5  |
| NAVER   | 5,963.1 | 4,410.1  | 롯데쇼핑   | 1,576.6  | 4,235.8  |
| CJ      | 1,040.6 | 4,251.4  | 두산     | 70.4     | 2,987.3  |
| 호텔신라    | 2,934.9 | 3,909.5  | LG생활건강 | 2,367.8  | 2,138.1  |
| BS금융지주  | 3,611.1 | 2,474.6  | 금호석유   | 1,281.5  | 2,000.2  |
| SK텔레콤   | 3,159.2 | 1,934.9  | 현대제철   | 2,007.5  | 1,751.3  |
| GKL     | 2,099.6 | 1,908.6  | 롯데케미칼  | 2,191.1  | 784.2    |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 투신     |         |           |        | 연기금    |         |           |          |
|--------|---------|-----------|--------|--------|---------|-----------|----------|
| 순매수    | 금액      | 순매도       | 금액     | 순매수    | 금액      | 순매도       | 금액       |
| 제넥신    | 8,344.3 | 와이지엔터테인먼트 | -875.2 | 서울반도체  | 3,663.3 | 와이지엔터테인먼트 | -1,127.7 |
| CJ E&M | 3,747.5 | 나노신소재     | -751.0 | 에스엠    | 3,619.9 | 포스코 ICT   | -764.3   |
| 서울반도체  | 2,205.5 | 캐스텍코리아    | -711.5 | CJ E&M | 1,389.1 | GS홈쇼핑     | -468.9   |
| 에스엠    | 2,124.9 | GS홈쇼핑     | -573.0 | 성광벤드   | 893.8   | 비아트론      | -457.7   |
| 다음     | 1,705.7 | 인터파크INT   | -406.2 | 모두투어   | 873.6   | 코나아이      | -353.4   |
| 루멘스    | 1,199.2 | KG이니시스    | -395.1 | 메디톡스   | 769.5   | 캠시스       | -307.7   |
| 메디톡스   | 1,050.6 | 평화정공      | -389.5 | 평화정공   | 589.3   | 동국제약      | -277.6   |
| CJ오쇼핑  | 908.0   | 뷰웍스       | -360.2 | 인터파크   | 555.3   | 농우바이오     | -265.8   |
| KT서브마린 | 865.0   | 위닉스       | -359.2 | 동국S&C  | 524.9   | 컴투스       | -261.0   |
| 덕산하이메탈 | 832.0   | SK브로드밴드   | -343.5 | 셀트리온   | 499.8   | CJ프레시웨이   | -218.5   |
| 은행     |         |           |        | 보험     |         |           |          |
| 순매수    | 금액      | 순매도       | 금액     | 순매수    | 금액      | 순매도       | 금액       |
| 씨젠     | 519.7   | 동서        | -537.6 | 서울반도체  | 1,349.1 | 와이지엔터테인먼트 | -1,749.5 |
| 서울반도체  | 494.9   | CJ오쇼핑     | -321.7 | CJ오쇼핑  | 955.1   | 솔브레인      | -407.9   |
| 토비스    | 305.9   | 한글과컴퓨터    | -282.1 | 파라다이스  | 760.6   | 셀트리온      | -332.6   |
| 뷰웍스    | 260.4   | 엘엠에스      | -200.8 | 유진테크   | 508.4   | 한글과컴퓨터    | -215.8   |
| 바이로메드  | 212.1   | 다음        | -173.5 | 덕산하이메탈 | 445.9   | 뷰웍스       | -209.2   |
| CJ E&M | 156.7   | 유진테크      | -133.5 | 씨젠     | 360.3   | 대동        | -206.1   |
| 대원산업   | 104.5   | 모두투어      | -119.6 | 엑세스바이오 | 322.1   | 바이로메드     | -192.0   |
| 유니크    | 104.1   | 하림        | -109.1 | 원익IPS  | 310.3   | 성광벤드      | -163.3   |
| SM C&C | 100.5   | 서부T&D     | -96.8  | 평화정공   | 280.5   | SK브로드밴드   | -131.3   |
| 실리콘웍스  | 76.0    | 바이오스마트    | -81.2  | SK컴즈   | 251.1   | 루트로닉      | -118.7   |

## KOSDAQ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 순매수    |         |          | 순매도     |       |       |
|--------|---------|----------|---------|-------|-------|
| 종목     | 외국인     | 기관       | 종목      | 외국인   | 기관    |
| 서울반도체  | 5,907.6 | 10,611.3 | 차바이오텍   | 313.4 | 663.7 |
| 제넥신    | 185.0   | 8,277.3  | 코나아이    | 153.3 | 577.6 |
| 파라다이스  | 842.9   | 2,771.1  | HB테크놀로지 | 118.0 | 413.9 |
| 메디톡스   | 120.8   | 2,253.6  | 원익IPS   | 63.7  | 394.1 |
| 덕산하이메탈 | 179.8   | 1,692.3  | 캠시스     | 75.0  | 317.2 |
| 루멘스    | 1,459.6 | 1,273.2  | 뷰웍스     | 693.2 | 290.5 |
| KT서브마린 | 170.4   | 1,080.3  | 위닉스     | 422.1 | 276.1 |
| 컴투스    | 1,438.7 | 949.3    | 동국제약    | 23.3  | 272.5 |
| GS홈쇼핑  | 1,525.6 | 630.6    | 한스바이오메드 | 306.9 | 248.7 |
| 동성화인텍  | 3,682.0 | 102.6    | 아미코젠    | 15.9  | 208.7 |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당일 선물 시장은 새벽 미 증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는 '선물옵션 모닝브리프'를 참조할 것  
KDB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 > 투자정보 > 투자전략 > AI/파생 >

## 주가지수선물 가격정보

|                 | KOSPI200     | 1409         | 1412      | 1503    | KSPJ9JCS |
|-----------------|--------------|--------------|-----------|---------|----------|
| 기 준 가 격         | 260.56       | 260.60       | 262.05    | 261.75  | 1.40     |
| 시 가             | 259.14       | 260.25       | 261.00    | 260.45  | 1.45     |
| 고 가             | 259.93       | 261.45       | 262.65    | 260.45  | 1.45     |
| 저 가             | 258.49       | 259.15       | 260.65    | 260.45  | 1.40     |
| 종 가             | 259.74       | 260.85       | 262.40    | 260.45  | 1.40     |
| 전 일 대 비         | -0.82        | 0.25         | 0.35      | -1.30   | -        |
| 이 른 가 격         | -            | 261.12       | 262.83    | 261.97  | 1.71     |
| 총 약 정 수 량 *     | 50,059       | 118,276      | 207       | 1       | 12       |
| 총 약 정 금 액 **    | 2,210,585    | 15,401,871   | 27,119    | 130     | 3,134    |
| 미 결 제 약 정       | -            | 100686 (136) | 1114 (20) | 417 (0) | -        |
| 배 당 지 수 ***     | 2.65% (CD금리) | 0.00         | 0.00      | 2.58    | -        |
| 반 응 배 수         |              | 1.60         | 1.39      | 0.00    |          |
| 장 중 평 균 배 이 시 스 |              | 1.408        |           |         |          |
| 전 일 대 비         |              | -0.257       |           |         |          |

주: 단위 (\* 천주, 계약 \*\* 백만 \*\*\* 포인트)

반응배수 = 일종 선물가격변동폭/일종 현물가격변동폭, KSPJ9JCS : 9월물과 12월물과의 스프레드를 의미함

장중 평균 배이스스는 1분 평균이며, 만기익일의 경우 전일대비는 직전 최근월물과의 비교이므로 의미없음

## 주가지수선물 투자자별 매매현황

(단위: 계약수)

|             |     | 외국인     | 개인     | 증권     | 보험     | 투신     | 은행      | 기타법인  | 국가    |
|-------------|-----|---------|--------|--------|--------|--------|---------|-------|-------|
|             | 매 수 | 58,806  | 32,559 | 23,889 | 209    | 925    | 249     | 1,708 | 140   |
|             | 매 도 | 57,783  | 33,053 | 24,261 | 125    | 1,033  | 396     | 1,708 | 126   |
|             | 비 중 | 49.2%   | 27.7%  | 20.3%  | 0.1%   | 0.8%   | 0.3%    | 1.4%  | 0.1%  |
| 순 매 수 누 적   | 전 일 | 1,023   | -494   | -372   | 84     | -108   | -147    | 0     | 14    |
|             | 누 적 | -10,670 | 3,758  | -2,616 | -677   | 11,350 | -335    | -698  | -112  |
| 매 매 편 향 강 도 |     | 0.88%   | -0.75% | -0.77% | 25.15% | -5.52% | -22.79% | 0.00% | 5.26% |

주 : 누적은 지난 쿼드러플워칭데이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의 증감을 누적한 것임

매매편향강도(%)=(순매수/(매수+매도))X100, 절대수치가 클수록 단방향으로의 집중력이 높다는 의미임

## ETF 가격정보

| 전일대비              |        | 등락을 거래량(천주) |        | 거래대금(백만원) |        | 외국인보유      |        | TIGER200 KODEX200 |       |  |
|-------------------|--------|-------------|--------|-----------|--------|------------|--------|-------------------|-------|--|
| TIGER200          | 30     | 0.12%       | 368    | 9,538     | 2.89%  | NAV        | 25,999 | 25,987            |       |  |
| KODEX200          | -65    | -0.25%      | 2,489  | 64,445    | 7.78%  | (ETF-NAV)% | -0.13% | -0.20%            |       |  |
| TIGER200 KODEX200 |        |             | 합성현물   | 최근월물      |        | 합성선물       | T/E    | 0.01%             | 0.01% |  |
| 증가/100            | 259.65 | 259.35      | 259.80 | 260.85    | 259.97 | 설정주수(천주)   | 600    | 8,100             |       |  |
| eff.delta         | -0.37  | 0.79        | -0.24  | -0.30     | -0.22  | 환매주수(천주)   | 800    | 0                 |       |  |
| diff/basis        | -0.03% | -0.15%      | 0.02%  | 1.11      | 0.23   | 상장주수(천주)   | 64,050 | 163,000           |       |  |

주 1 : effective delta(유효델타) = ETF등 전일대비 증감분/KOSPI200 전일대비 증감분

2 : 합성현물 = (C-P)+X exp[-rt], 합성선물 = (C-P)exp[rt]+X, 거래량, 설정-환매-상장 등의 단위는 천주

3 : 괴리/베이스스 - KOSPI200 대비 괴리율/베이스스, 거래대금의 단위는 백만원

4 : TE(tracking error)=[(NAV/(KOSPI200X100))-1]X100(%)

## 주가지수옵션 가격정보

| 대 표<br>내재변동성(%) |               | 11.2    | 콜평균(%)  | 10.8    | 풋평균(%)  | 11.8    | 역사적<br>(5일,%) | 10.2  | 역사적<br>(20일,%) | 11.2 |
|-----------------|---------------|---------|---------|---------|---------|---------|---------------|-------|----------------|------|
| 월물 행사가격         |               | 1407    |         |         |         |         | 1408          |       |                |      |
|                 |               | 265.0   | 262.5   | 260.0   | 257.5   | 255.0   | 262.5         | 260.0 | 257.5          |      |
| Call            | 가 격 (p)       | 0.32    | 0.86    | 1.87    | 3.45    | 5.45    | 2.86          | 4.05  | 5.55           |      |
|                 | 전 일 대 비 (p)   | -0.06   | -0.08   | -0.05   | 0.05    | 0.10    | -0.01         | -0.15 | -0.10          |      |
|                 | 내 재 변 동 성 (%) | 10.70   | 10.90   | 11.10   | 11.80   | 12.60   | 10.20         | 10.30 | 10.50          |      |
|                 | 거 래 량(계약수)    | 201,641 | 201,657 | 136,417 | 19,990  | 2,367   | 543           | 498   | 137            |      |
|                 | 미 결 제(계약수)    | 47,715  | 28,647  | 21,998  | 11,086  | 3,829   | 985           | 1,841 | 577            |      |
| Put             | 가 격 (p)       | 5.35    | 3.35    | 1.90    | 0.98    | 0.44    | 4.95          | 3.70  | 2.68           |      |
|                 | 전 일 대 비 (p)   | -0.25   | -0.35   | -0.23   | -0.17   | -0.11   | -0.15         | -0.40 | -0.15          |      |
|                 | 내 재 변 동 성 (%) | 10.20   | 10.30   | 10.90   | 11.50   | 11.90   | 10.70         | 11.00 | 11.20          |      |
|                 | 거 래 량(계약수)    | 1,806   | 7,335   | 98,333  | 138,120 | 175,110 | 176           | 476   | 716            |      |
|                 | 미 결 제(계약수)    | 2,837   | 5,395   | 22,886  | 28,229  | 39,591  | 1,440         | 1,146 | 1,208          |      |

주 : 역사적 변동성, 내재변동성 등은 CHECK II 단말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

## 주가지수옵션 투자자별 매매현황

(단위: 계약수)

| Call   |     | 외국인     | 개인      | 증권      | 보험   | 투신     | 은행   | 기타법인   | 국가     |
|--------|-----|---------|---------|---------|------|--------|------|--------|--------|
|        | 매 수 | 347,110 | 298,312 | 337,755 | 0    | 458    | 19   | 6,701  | 91     |
|        | 매 도 | 345,330 | 288,877 | 349,228 | 0    | 96     | 44   | 6,749  | 142    |
|        | 비 중 | 35.0%   | 29.6%   | 34.7%   | 0.0% | 0.0%   | 0.0% | 0.7%   | 0.0%   |
| 순매수 누적 | 전 일 | 1,780   | 9,435   | -11,473 | 0    | 362    | -25  | -48    | -51    |
|        | 누 적 | 30,140  | 32,308  | -58,083 | 0    | -1,220 | 464  | -3,651 | 39     |
| Put    |     | 외국인     | 개인      | 증권      | 보험   | 투신     | 은행   | 기타법인   | 국가     |
|        | 매 수 | 343,890 | 246,107 | 197,041 | 0    | 51     | 340  | 192    | 3,420  |
|        | 매 도 | 336,111 | 234,522 | 214,183 | 0    | 29     | 600  | 226    | 5,370  |
|        | 비 중 | 43.0%   | 30.4%   | 26.0%   | 0.0% | 0.0%   | 0.1% | 0.0%   | 0.6%   |
| 순매수 누적 | 전 일 | 7,779   | 11,585  | -17,142 | 0    | 22     | -260 | -34    | -1,950 |
|        | 누 적 | 87,518  | 14,633  | -98,549 | 0    | 8      | 201  | 12     | -3,816 |

주 : 누적은 직전 옵션만기일 이후부터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 증감을 누적이한 것임

## 차익거래 잔고와 프로그램 매매 동향

|                                      |         | 주 식       |           | 주가지수선물    |           | 주가지수 CALL옵션 |       | 주가지수 PUT옵션 |       |
|--------------------------------------|---------|-----------|-----------|-----------|-----------|-------------|-------|------------|-------|
|                                      |         | 매도        | 매수        | 매도        | 매수        | 매도          | 매수    | 매도         | 매수    |
| 차 익 거 래<br>잔<br>( 백 만 원 )            | 최 근 월 물 | 6,477,456 | 9,447,242 | 9,475,993 | 6,479,273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합 계     | 6,477,456 | 9,447,242 | 9,475,993 | 6,479,273 | 0           | 0     | 0          | 0     |
|                                      |         | 프로그램 매도   |           |           |           | 프로그램 매수     |       |            |       |
|                                      |         | 주식 거래량    |           | 주식 거래대금   |           | 주식 거래량      |       | 주식 거래대금    |       |
|                                      |         | 수량        | 비율(%)     | 금액        | 비율(%)     | 수량          | 비율(%) | 금액         | 비율(%) |
| 프 로 그 램<br>매 매 동 향<br>( 천 주, 백 만 원 ) | 차 익     | 611       | 0.30      | 35,294    | 1.18      | 299         | 0.14  | 16,149     | 0.53  |
|                                      | 비 차 익   | 15,260    | 7.58      | 565,334   | 18.90     | 18,983      | 9.42  | 728,950    | 24.37 |
|                                      | 합 계     | 15,872    | 7.88      | 600,628   | 20.08     | 19,282      | 9.56  | 745,099    | 24.90 |
| 베 이 시 스 수 준 (p)                      |         | 1.675     | 1.575     | 1.475     | 1.375     | 1.275       | 1.175 | 1.075      | 0.975 |
| 차 익 성 순 매 수                          |         | -71       | 334       | 242       | 170       | 4           | 23    | -93        | -84   |

주 : 차익거래 잔고는 1거래일 지연된 데이터임

| 유가증권시장                 |          |      | 07/01 (화) | 06/30 (월) | 06/27 (금) | 06/26 (목) | 06/25 (수) |
|------------------------|----------|------|-----------|-----------|-----------|-----------|-----------|
| 가격 및<br>거래량 지표         | 코스피지수    |      | 1,999.00  | 2,002.21  | 1,988.51  | 1,995.05  | 1,981.77  |
|                        | 이동평균     | 20일  | 1,995.28  | 1,995.08  | 1,995.58  | 1,997.01  | 1,997.14  |
|                        |          | 60일  | 1,993.47  | 1,993.36  | 1,993.08  | 1,992.95  | 1,992.67  |
|                        |          | 120일 | 1,970.06  | 1,969.62  | 1,969.33  | 1,969.52  | 1,969.58  |
|                        | 이격도      | 20일  | 100.19    | 100.36    | 99.65     | 99.90     | 99.23     |
|                        |          | 60일  | 100.28    | 100.44    | 99.77     | 100.11    | 99.45     |
|                        | 거래대금(억원) |      | 30,049.5  | 29,898.8  | 33,951.2  | 38,885.3  | 33,774.4  |
| 시장지표                   | 거래대금 회전율 |      | 0.25      | 0.25      | 0.29      | 0.33      | 0.28      |
|                        | 투자심리도    |      | 50        | 60        | 60        | 60        | 50        |
|                        | ADR      |      | 98.68     | 92.14     | 88.58     | 84.37     | 90.06     |
|                        | 이동평균     | 20일  | 92.99     | 93.28     | 93.87     | 94.78     | 95.34     |
|                        | VR       |      | 100.35    | 112.89    | 116.32    | 147.04    | 114.20    |
| 코스닥시장                  |          |      | 07/01 (화) | 06/30 (월) | 06/27 (금) | 06/26 (목) | 06/25 (수) |
| 가격 및<br>거래량 지표         | 코스닥지수    |      | 544.90    | 537.06    | 531.43    | 530.04    | 527.26    |
|                        | 이동평균     | 20일  | 533.33    | 533.41    | 534.04    | 534.97    | 535.86    |
|                        |          | 60일  | 548.43    | 548.50    | 548.58    | 548.79    | 548.98    |
|                        |          | 120일 | 537.51    | 537.13    | 536.79    | 536.53    | 536.28    |
|                        | 이격도      | 20일  | 102.17    | 100.68    | 99.51     | 99.08     | 98.39     |
|                        |          | 60일  | 99.36     | 97.91     | 96.87     | 96.58     | 96.04     |
|                        | 거래대금(억원) |      | 15,341.7  | 12,214.2  | 11,903.3  | 12,834.0  | 14,287.1  |
| 시장지표                   | 거래대금 회전율 |      | 1.16      | 0.94      | 0.93      | 1.00      | 1.12      |
|                        | 투자심리도    |      | 40        | 40        | 30        | 30        | 30        |
|                        | ADR      |      | 94.74     | 84.35     | 81.29     | 77.89     | 80.38     |
|                        | 이동평균     | 20일  | 82.18     | 82.19     | 82.42     | 82.85     | 83.20     |
|                        | VR       |      | 115.38    | 103.79    | 82.79     | 65.08     | 50.28     |
| 자금지표                   |          |      | 07/01 (화) | 06/30 (월) | 06/27 (금) | 06/26 (목) | 06/25 (수) |
| 국고채 수익률(3년, %)         |          |      | 2.66      | 2.68      | 2.69      | 2.71      | 2.69      |
| AA-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 %)   |          |      | 2.98      | 3.00      | 3.01      | 3.03      | 3.02      |
| 원/달러 환율(원)             |          |      | 1,011.70  | 1,011.80  | 1,013.40  | 1,016.20  | 1,021.00  |
| 원/100엔 환율(원)           |          |      | 996.36    | 998.62    | 999.21    | 998.33    | 1,001.57  |
| CALL금리(%)              |          |      | 2.48      | 2.48      | 2.48      | 2.48      | 2.48      |
| 국내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      | -         | 618       | -17       | -380      | -931      |
| 해외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      | -         | -191      | 473       | -183      | -159      |
| 주식혼합형펀드 증감(억원)         |          |      | -         | 250       | -19       | -511      | -341      |
| 채권형펀드 증감(억원)           |          |      | -         | -836      | 862       | 5,366     | -272      |
| MMF 잔고(억원)             |          |      | -         | 733,576   | 751,204   | 751,924   | 760,157   |
| 고객예탁금(억원)              |          |      | -         | 142,830   | 149,425   | 148,308   | 141,818   |
| 순수예탁금 증감(억원)           |          |      | -         | -8,065    | 1,544     | 4,758     | 1,787     |
| 미수금(억원)                |          |      | -         | 1,011     | 1,036     | 1,047     | 1,237     |
| 신용잔고(억원)               |          |      | -         | 47,757    | 47,982    | 48,068    | 48,375    |